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月)
本紙夕刊十面

極東問題에對한
英米態度如何가 會議成否岐點
極東에對한强力한發言權留保하려면
議事展開는絶望(消息通의見解)

【倫敦十五日特派員發電通】軍縮會議의 豫想에關하야 日英米三國消息通側의 見解를 綜合하여 보면 問題는結局 極東의不脅威不侵略의 責否라는點에 落着될터인데 英米特히 米國이極東에잇서 日本에對抗하는 强力한發言權을 留保하려하는지 안하는지 政策問題가 會議成否의 分岐點이되리라고 觀測하는傾向이有力하다 그리고英米는 日本의主張에 爲先反對하고 다시代案을提示하는 形式으로 會議를進行식히리라고 思維되나 結局은日本側의 壓力에對한 英米의 善後策은 벌서技術的 軍縮範圍를超越하므로 英米間에 重要會談을遂하고 필립스米國務次官이急遽歸國하야 루즈벨트大統領에게復命하야 會議의 一切經過를述하고 裁斷을 求할터인바 軍縮會議는 日英米三國間에 關한限 此를 絕頂으로 好望의展開又는 絕望의停頓 兩者中 어나 하나의 道程으로 決定 되리라고 豫想된다

日本案妥當性을 極力强調
英米誤謬를指摘

【東京電話電通】第二週를 마지하는 倫敦海軍會議는 繼續하야 日本의共通最大限設定의 提案에 對한 論戰의展開가 豫想되므로 海軍當局은 現地全權團과 密接한連絡을取하야 英國의脆弱性論이不當한것과 米國의 安全感平等論의 誤謬를 指摘論破하야 日本案의 妥當性을 認容케할準備를 整頓하고잇다 그리고 日本海軍當局은 英米가 萬若眞實로軍縮達成과 世界平和를 希望한다고하면 昭和十年末現在의 海軍現有勢力中 艦齡超過에達하는艦艇의代艦建造를 抛棄한다고하면 艦齡內艦艇은 極히 僅少한艦艇에依하야 日本의 共通最大限設定案에 應諾할수잇다고 論斷하고잇다 이제 參考로 昭和十年末現在五大海軍國制限內艦艇의 現有勢力을 比較하여보면 左와 如하다

▲日本
旣成艦艇 二〇三隻 七四七、四五八噸
艦齡內艦艇 一五四 六九一、四五二

▲英國
旣成艦艇 二九八 一、二三三、三九九
艦齡內艦艇 二五一 八四四、八二三

▲米國
旣成艦艇 三五五 一、〇六六、四五九
艦齡內艦艇 二九四 八〇七、九九五

▲佛國
旣成艦艇 二〇四 五八七、一二二
艦齡內艦艇 一五一 四九九、四三三

▲伊國
旣成艦艇 一九三 三八六、八四二
艦齡內艦艇 一三五 三一〇、一一五

理事會終了까지 伊態度發表延期

【羅馬十五日發電通】羅馬外交關係側에서 開知한바에 依하면 뭇솔리니伊首相은 英佛和協試案에 對한 態度發表를 十八日緊急理事會의 以後까지 延期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 그러나同案에 對한 伊太利首相의 態度는 이미 決定되여잇는바
一、同案은 決코伊에紛爭解決策으로 受諾할수업는것이다
一、但 同案이包含한 示唆는今後和協工作의 基礎가될수잇는點이잇는바 同案을새로운交涉의出發點으로 利用하는데는 反對하지안는다
고하는方針에 落着되엿는데 理事會의 形便如何로 臨機硬軟의 自由作戰을 樹立하게되엿다

北平各大學學生團 大學示威運動開始
★……自治反對와打倒帝國主義를高唱
各處에서巡警과衝突

【北平十六日發電通至急報】北平學生聯合會는 十六日 再次 當局의制止를 물리치고 自治反對、打倒日本帝國主義를 高唱하야 過激한 宣傳삐라를 撒布하면서 大學示威運動을 開始하얏다

【北平十六日發聯合】胡適 其他 大學諸敎授가 指揮하고잇는 學生自治反對運動은 其後 더욱 深刻化하야 十六日朝 再次 學生團은 內外呼應하야 데모運動을 開始하야 公安隊와 衝突하면서 氣勢를 올리고잇다

【北平十六日發電通至急報】衛戍司令部及市政府 公安局等이嚴重禁止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北平各大學의 男女學生은 十六日朝 又復各自學校에 集合하야 各方面에서 一齊히自治反對 打倒日本의 大示威運動을 開始하엿는데 到處에서 巡警隊와衝突하야 多數女學生이 檢束되엿고 要所要所에는 消火호스를準備한 武裝巡警隊가 配置되엿는바 再次不穩한 空氣가漲溢하게되엿다

學生運動全國化

【北平十六日發聯合】學生의 自治政權反對運動은 昨日上海學生救國會의 支援決議로 數日前廣東에서도 同樣의 運動이 擡頭하야이제는 全國的으로 北平學生運動支援의 風潮가高하야저서一步惡化하면 全國的抗日運動化하려는 危險이 多分히잇서 宋哲元氏및其他政府의 이對策은 注目할만하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門戶開放主義는 米國東洋進出策
(廿七) 雲岡生

前回도 暫論한바 『日本은 此條(註=九國條約가)는것)、中國에 對한 多邊條約의 締結은 今後에도 絕對로 拒否하는者이다。』라는것은 日本의 重要國策의 하나이다。이 國策이 海軍軍縮會議에 臨하는 日本의 態度로 나타날때에는 『極東의 政治問題는 嚴格히 議題로부터 除外하기를 日本은 要求한다。』로 表現되는것이다。昨年의 豫備會議에 잇서서도 日本은 頑强히 이것을 主張하야 그主張을 貫徹하엿거니와、今番의 本會議에 잇서서도 亦是、이 主張은 頑强히 貫徹할 態度를 堅持하고 잇는것이다。日本의 이 主張은 此를 簡單히 말하면 『海軍軍縮會議에 잇서서 極東政治問題의 導入은 此를 反對한다。』는 文句로 表示되는것이다。

그러면 日本의 이러한 態度에 對하야 極度로 反對하는 나라는 어느나라이냐 하면 그것는 두말할것도 업시 첫재 米國이오、그次가 英國이오、그다음은 東洋에 領土關係를 가지고、中國과도 不少한 利害關係를 가진 佛蘭西、伊太利、和蘭、白耳義、葡萄牙等等諸國이다。그러나 利害關係로 보나、實力關係로 보나 佛伊和白葡의、五國은 問題가 안되고、오직 米英兩國만이 이 問題에 對한 日本과의 對立關係에 잇서서 日本과 拮抗할 實力과 또는 資格을 가진者라고 볼것이다。

다음 그러면『極東政治問題導入』의 骨子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九國條約에 關한 問題다。九國條約은 前屢述한바와가치 極東門戶開放及 機會均等主義를 再確認한 者이며、同時에 따라서 中國에 잇어서의 日本의 特殊權益을 否認한者이다。따라서 日本의 活動을 阻止하며、日本의 手足을 束縛하려는 者이다。日本은 華府會議當時에 잘못생각하야 한番은 이런데 걸녀들어갓스나、再次、이런데 걸녀서는 絕對로 안되겟다는 決心을 가진者이다。

그러나、이것은 日本이 軍縮會議에잇서서의 極東政治問題의 導入을 反對하는 槪括的理由어니와 이제 이것을 分析하야 細說해 말하면 비로소 日本이 反對하는 理由도 좀더 仔細히 알것이요 米英兩國이 이것을 導入하고저하는 理由도 좀더 明白히 나타날것이다。

첫재 그所謂 極東門戶開放主義及機會均等主義는 『中國이라는 나라를 主權으로나 領土로나 現在잇는 現狀대로 그냥 保全해 가지고、아모나라에 對해서도 通商貿易航海上、均等의 機會를 주도록 하자。』를 骨子로 하는것인데 이런 主義가 왜 米國의 提唱으로 始作되엿느냐?하면 米國이란 나라가 英佛諸國보다 뒤 떠러저서 帝國主義의 나라가 되여 지고 먹을것을 차저서 世界를 도라단니면서 보니、極東에 中國이라고 이름하는 만흔 人口에 豊富한 富源을 가진 未開國이 잇는데 이것도 亦是、歐洲列國이 드러부터서 領土를 빼앗는다、勢力範圍를 擴張한다하야 바쯕 먹어버린 感이 잇을뿐만아니라、大勢를 그냥 두엇다가는 自己가 着手할餘地가 업시 列國의 市場獨占으로、다 되여버리고 말 念慮가 濃厚한것을 보고、이에 自國도 東洋에 進出하야 貿易及航海上 한목드러 보겟다는 意圖下에 當時에 流行하던 自由主義와 平等主義를 巧妙히 加味하야 自國傳來의『몬로主義』에 對한 逆『몬로』主義의 意味로 案出하야提唱한것이 卽、中國의 門戶開放、機會均等主義라는것이다。故로 米國의 이 主義가 처음으로 提唱되던 一八九九年當時에 잇서서는 그目標가 歐洲列國에잇섯다。米國이會前、歐洲諸國에對하야 몬로主義를主張하든시 今番에는 그所謂、極東門戶開放主義라는 美名下에 다시 機會均等主義를 歐洲諸國을向하야 一八九九年에 『淸國版圖內、特히 淸國에 잇는 列强의 勢力範圍又는 利益範圍內에서 各國이 다 均等한 機會를가지고通商貿易을하자。』고한것이다。

그러고 이主義를 徹底히 擁護하는데는 中國領土保全이 必要한故로 그後 漸次 中國의 主權尊重、領土保全까지 包含하야 主張하게된것이다。

故로 이主義가 提唱된 後로 日露戰爭에 至하기까지는 米國의 目標가 歐洲列國에 잇섯스나、日露戰爭後、世界大戰中又 그後부터는 中國에서의 門戶開放 及機會均等主義擁護上、列國이 아니요、日本이라고 米國은 생각하게 되것이다。그리하야 只今은 極東門戶開放主義를 要求할나라는 발서 歐洲警戒를 사이에 두고 正面으로 對立한者는 主唱者米國과 東洋의 覇者日本이다。(續)

會議는暗礁에直面
共通最大限問題의停頓狀態陷入으로
英側倂行審議提議乎

【倫敦十五日電通特派員發】英國側은 共通最大限問題가 停頓狀態에 陷入하게되자 그局面打開策으로 量的問題의 討議는 뒤로돌리는가 乃至質的問題와 倂行하야 審議하기를 提議할 模樣인데 日本代表部는 軍縮精神의 根本義에 비추어 보든가 또는 技術上으로보아 量的問題를 先議하지안흐면質的問題로 行하드라도 無成果가업슬것이라고 이點에關하야 條理잇게 說明하기爲하야 十五日 岩下少將 阿部大佐等 專門委員이說明草案을 作成하야十六日 會議에서各國 代表를說明할 準備一切를 完了하엿다 그러나各國代表가 果然 此를 理解할는지 그與否는 全혀 疑問되는바 十六日 會議에 質的問題가 提出되면 會議는 最初의 難關에 逢着하리라고 觀測된다

英米兩代表部의 基本的反對觀念
英國은二國標準、米國은渡洋作戰!
日本代表部反駁準備

【倫敦十五日聯合特派員發】十八日에 開催될 全權會議에 備하야 海軍側專門委員岩下少將以下 幹部는 十五日 日曜임에도 不拘하고 代表本部크로브나하우스에 終日籠城協議를遂하엿다 專門委員會議는 爲先過去一週間에 亘한 第一委員會 日英會談의 議事에 精細한 檢討를 行한結果 日本側의要求인 共通最大限設定을 中心으로 英米兩國代表部로부터 質問乃至 反對의 基本的背景이되여잇는 觀念은
一、米國은 大西洋에 英國은大西洋內地中海에 亘하야一國標準以上의均等海軍을 保有하고더욱 太平洋에서 日本을 壓倒하고또는 充分히 外結托할수잇는兵力을 保持하려하는것
一、米國은 大西、太平兩艦隊를 合하야 渡洋作戰의 餘地를 남기려하는것
이 그意圖하는바이라는것은 그發言에依하야 明白히 看破할수잇다는 結論에 到達하엿다 따라日本 代表部는 來一週間에잇서서는 右二點을 中心으로 英米兩國의主張을 反駁하기로 作戰을決定하야 專혀그러한點의 不當을 指摘하고 日本의 主張은均等兵力原則의 確立이곳眞正한國防安全感을增進하는 所以라는 旨를主張하기로 決定하엿다고 하고 十六日부터全權會議는永野主席全權、永井全權外岩下主席委員井上外務書記官 溝田通譯官이 補佐로出席하야 記錄을通譯하기로 決定하엿다

人事·集會

◆李丙三氏(東星商業敎員)祖父別世하야다가五時出發에同生

八面鋒

◇ 極東事態에對한 英米側의發言을留保하고 아니함에 軍縮會議의 成否가 달렷다고。
◇ 테임스江물과 黃河水가 넘나드는것도 事實이지만、軍縮과 軍艦이 넘나들음은 不可。
◇ 『兵力量의 最大限』이 『固執의最大限』과 씨름하한다。
◇ 씨름의結果는 勝負로 나타나겟지만 莫上莫下로 비는일도 업지안하 잇는것을考慮할일。
◇ 獨立以來의 大統領마사리크博士가 辭職하자 獨立以來의外相 베네슈氏가 大統領에。
◇ 共和國의 執政者로서는 勤續의大記錄。체코國을爲하야서도 多幸한일。

各國今年末現在
兵力量과艦種別比較

【東京電話聯合】日本側의要求인 共通最大限方式은 攻擊的武器인 主力艦 航空母艦及 甲級巡洋艦에 對하여는 艦種別로 適用하고、乙級巡洋艦以下의防禦的武器에對하여는 共通限은 總噸數의 均勢를 維持하는것인데 各國一九三五年末現在의 現有兵力量을艦種別比較는 左와如하다(單位千噸 數字는 比較 括弧內는 隻數)

◇主力艦

日	二七二、〇七〇	(九)
米	四五五、四〇〇	(十五)
英	四七四、七五〇	(十五)
佛	一八五、九二五	(九)
伊	八六、五三三	(四)

◇航空母艦

日	六八、三七〇	(四)
米	九二、〇〇〇	(四)
英	一一五、三五〇	(六)
佛	二二、一四六	(一)
伊	切	

◇甲級巡洋艦

日	一〇七、八〇〇	(十二)
米	一四二、四二五	(十五)
英	一四三、九七〇	(十五)
伊	一〇五、九二三	(十)

◇乙級巡洋艦

日	一〇七、二五五	(二十一)
米	七〇、五〇〇	(十)
英	二二五、〇九六	(三十九)
佛	五九、四一四	(九)
伊	七一、一八三	(十)

◇驅逐艦

日	一一八、三二一	(九十七)
米	二五二、三二〇	(二二二)
英	一九七、八九四	(一六九)
佛	一二二、一三七	(七六)
伊	九一、四八八	(八八)

◇潛水艦

日	七三、六七九	(六〇)
米	七三、九五〇	(八七)
英	五五、二九九	(五四)
佛	八五、八六六	(九九)
伊	五六、九四七	(七四)

和協試案에對한 反對氣勢猛烈
急進社會黨和協案反對表明
라발內閣의根底動搖

【巴里十五日發聯合】英佛和協試案에 對한 反對는 逐日 猛烈하여가는 形勢이다 特히 急進社會黨은 十五日에 이르러 다음내 和協試案 絕對反對態度를 闡明하게되엿스므로 라발內閣을 根底부터 動搖식힐 重大事라하야 各方面에서 重大關心을 가지고 잇다

和協試案中心으로 國際情勢險惡豫想

【倫敦十五日發聯合】英佛和協試案을 中心으로 國際情勢險惡에 鑑하야 首相 볼드윈氏는 十五日 午後四時 首相官邸에 歸着한 이든無任所相과 會見하야 詳細히 쥬네브에잇서서 和協試案을 中心으로한 形勢의 報告를 受하고 內相사이먼氏는 午後五時頃 週末休暇에 나가는 藏相첸벌린氏는 急遽倫敦에 出現하야 十五日夜의 首相官邸는 日曜日임에도不拘하고 閣僚들의 出入으로 大端히 森嚴하다

체코大統領마氏 正式으로辭任
後任에는베네쉬外相

【프라그十四日發聯合】체코슬로바키아共和國의 元勳 大統領토마스·게릭·마사리크氏는 十四日正午 레니이城의 大統領官邸에서 正式으로 大統領을 辭任하고 同時에 聲明書를 發表하엿다 後任에는 베네쉬外相을 推薦하엿다 聲明要旨는 左와 如하다 大統領의 職務를 遂行함에는 爲先 康健한 身體를 必要한다 余는 在任二十年 身病이 漸重하야 職任에 堪當할수업게되엿다 余는 체코共和國의 政府는 今後에도 外交政策을 그러치안코 國籍의 如何를 不問하고 全國民에 對하야 嚴格公正한것으로 臨하지안코면 안될것이다 余는 後任으로 多年國務를 分擔하여온 베네쉬外相을 推薦하는 光榮을가진다 辭任에當하야 余는祖國의 將來에 全幅的信賴를 가지는것을 確言한다(寫眞은 마氏)

殷政權塘沽接收

【天津十五日發電通】冀東自治委員會는 塘沽를 接收하기爲하야 河北省政府首席商震氏와의間에 諒解가成立되여 唐山으로부터 保安隊二百名은 十五日 塘沽에到着하야 商震軍의 兵營明渡를 要求하엿는바 商震軍의命令이 軍隊에 徹底되지못하엿기때문에 드듸어 商軍이衝突하야 雙方이모다 死傷者를 내엿는데 午後二時에이르러 商震軍의 撤退로 事件은解決되엿다 이리하야 殷汝耕政權은 天津의咽喉를 扼하는 塘沽를 그勢力下에 넣케되엿다

唐有壬氏 突然辭表提出

【南京十六日發聯合】外交部常務次長唐有壬氏는 突然十五日附로 辭表를 提出하엿다 新任外交部長張群氏는 百方으로 慰留에努力하엿스나 唐有壬氏의 辭意는 堅固하야 政府는 마침내 十六日이를 受理하엿다 近近後任을 任命할터이다

國民政府五院長 就任式擧行
各部長就任式도

【南京十六日發電通】國民政府는 十六日午前十時부터 中央黨部大禮堂에서 記念式을 擧行한後選擧에 決定한 五院正副院長의就任式을 擧行하엿다 或은 林森主席이 監察院主席에 오르매 蔣介石以下 五院正副院長 順次로 監察院長앞헤 나아가 右手를擧하고 宣誓文朗讀 林森院長으로부터 各辭令을 手交한後 簡單한訓示를 與하엿는데 蔣介石氏는 一同을 代表하야 答辭를述하고 十時半 式을 終了하엿다 다음에 十一時부터 再次 大禮堂에서 行政院各部長의 就任式이잇서 新官制下에 蔣作賓內政、張群外交、何應欽軍政、陳紹寬海軍、顧孟餘交通、吳鼎昌實業、孔祥熙財政、王世杰敎育、張公權鐵道各部長以下 各委員會長이 順次로 宣誓를終了하엿는데 各部長은 十六日午後二時 처음으로 初登廳하야 事務引繼를行하엿다

담·기침에
寒風凜烈! 感氣! 기침! 기침에注意하라
感氣와기침은萬病의原因무서운! 肋膜炎、肺炎도此少한不注意로부터생긴다治療는速히躊躇말고淺田飴를服用하야、冬季에跳梁하는惡魔를……絶滅식히라!
淺田飴(아사다아메)
【適應症】
담、기침一切
感冒、喘息、百日咳
肺病으로부터생기는 咳痰、肋膜、氣管支가다루、腺病質、一般虛弱症、病中、病後 産前、産後 咽喉가낫분분
其他老人、小兒一般虛弱者의補血强壯劑로卓効이슴다
定價 二十錢부터二圓까지
携帶用 固形淺田飴
冬節外出에 咽喉를守護
朔風이亂舞하야街頭에病菌을흩어넘기는이때에여러분의外出에부드러운咽喉를노리고잇슴니다、부대防備에注意하게옵시다하지마시라固形淺田飴는旅行、遠足、觀劇、講演會、音樂會、執務、其他混雜한때에咽喉를保護하라音聲을淸雅하게、喫煙의맛을도옵고呼吸器疾患을豫防하는良劑이다
定價 .30 .50 1.00
本舖 東京·大阪 堀內伊太郞
全國藥店에잇음

第一劇場
十二月十五日부터三日間大公開 連日晝夜三回上映 午前十一時半 午後三時半同七時半 大衆料金 階上二十五錢 階下十錢均一
新興키네마社太秦超特作品『오-근와운든版』 內田吐夢氏原作監督
現代劇 白銀の王座 小杉勇氏 高田稔氏 市川春代孃 共演
씨ㅣ즌이닥처온스키! 大臣映畵! 무서운運命과눈보라때문의死에直面한愛人을안고서死에苦鬪를征服하고! 神秘한大自然에품에안기여! 이映畵에 그리여잇는모!든것은너머도原始的人間愛慾의爭鬪篇!
西部活劇 벅크존스氏 奇傑존스 도로시!레비아ㅣ孃主演
次週豫告 女心變化記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五五

洋劇專門 浪花館
十二月十八日까지 晝夜三回上映
松竹ニュース メトロ、アワーギャング映畵 坊やのハイキング
松竹下加茂特作 野狐三次 坂東橘之助他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火災重와사흥은江戶의花!江戶ッ子三次에게도사랑의아버지를찾는半面이이섯다!
第一映畵オールトーキー 父歸る母の心 月田一郞、山田五十鈴、夏川大二郞外올-스타ㅣ
文豪菊池寬不朽名作映畵化! 全篇赤裸裸한人間의思愛와涙! 당신의마음의琴線에感激의도레모를

桃花劇場
十二月十二日부터大公開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파社超特全發聲日本版 社會劇 六月十三日밤 全八卷 主演 구라이부룩크氏 메리보란드孃
◇파社超特作無聲映畵 大喜活劇 男裝女劍客 全七卷 監督…크라렌스밧자氏 主演…비부부다니엘스孃
◇大都映畵社超特作無聲映畵 現代悲劇 貞操 全七卷 監督…小澤二氏 主演…琴絲路孃
次週 復活 소녤과그의아들 像告白馬王國 푸란저介다인의新婦 歸鄕
麻浦桃花洞 電話 三三

優美館
十二月十七日부터特別大封切! RKO會社特別提供全發聲日本版 에드와ㅣ드로리아監督!
密林의荒鷲 보비콕그스少年主演 짐에반스少年
猛獸가怒號하는密林中에暴風으로墜落當한두少年이란飛機! 寂寂無人의洞窟中에猛獸의襲擊과土砂의崩壞도突然山賊의捕虜가되여運命이時急할때 아메리카에부트친 S.O.S!
太秦發聲映畵所超大作全發聲 俺は水兵 永富映次郎監督 柳家金語樓 主演 北原幸子
大都映畵特作時代劇 木曾路の流れ星
아리랑고개
黃金町 電光 九五三 優美館

西大門、鍾路兩署의 思想事件今日送局
共大出身等關係者十三名
取調三個月만에落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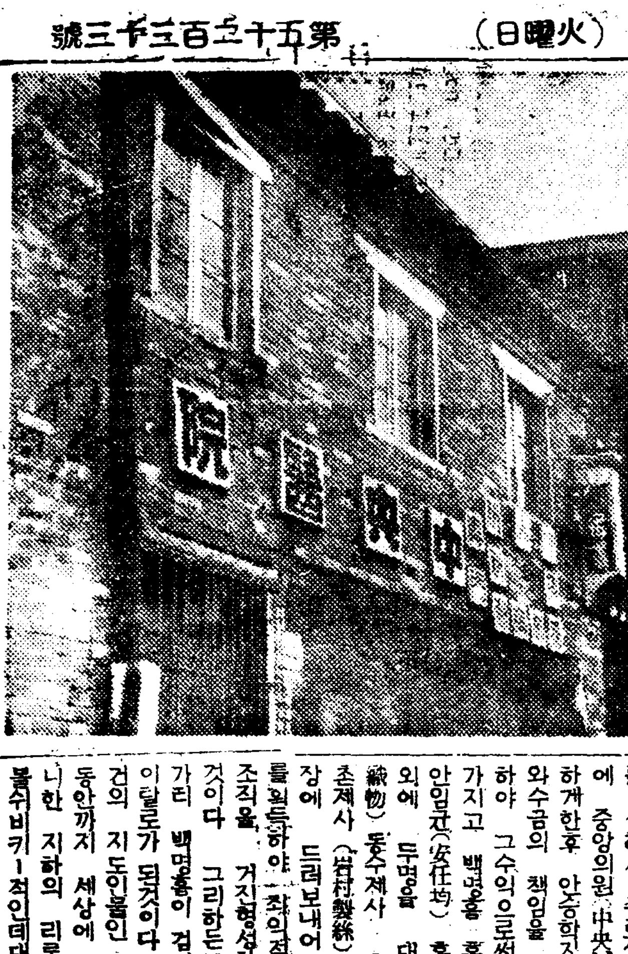
지나간 구월이십오일 서대문서 고등계에서 수원(水原)출생의 백명흠(白明欽)·안승락(安承樂)등 남녀 십여명을 검거취조하든 적색로동조합 조직사건과 이와거진동시에 종로서에서도 안창대(安昌大)·리효정(李孝貞)·강경자(姜景子)등 남녀 십수명을 검거취조하든 적색로동조합조직사건』이 두사건은 그동안 석달이나 두고 량서에서 관계자의 검거와 취조에 분망하든끄테 수일전 취조의 일단락이 끗낫슴으로 십륙일 오전열한시 량서로부터 다카하(서대문서)에서 다섯명 종로서에서 여덟명 도합 열세명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기엇다 동검사국에서는 호리(堀)검사가 사건을 담임으로취조를개시하엿다 이로서 동대문경찰서에 남어잇는 체신국원 중심의 사상사건 오륙명에관한것을남기고는 시내경찰서의 사상사건으로 주목을 끌든것은 이번말로 일단조을떼이게된 모양이다

四年前秘入國한 共大出身金承塤
各地로轉轉하면서以來活動中
男女八名鍾路署檢擧

약이개월전부터 부내종로 경찰서고등계에서 적색로동조합(赤勞)조직협의로 김승훈(金承塤)외 남녀 약사십여명을 검거취조하든사건은 취조가 끗남을따라 십륙일오전열시에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함께 전긔 김승훈외 남녀여덜명을 송국하엿는데 사건내용은 전번에 경긔도 경찰부에서 적로사건으로 종국된정재철(鄭載轍)·권우성(權又成)등과관련된것으로 역시시내각공장의 직공층과 학생층을중심으로 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려든것인데 수령격인 김승훈은 일천구백삼십이년에『모스코』공산대학을 졸업하고 곳『프로핀테른』의 지령을바더 가지고 해삼위(海蔘威)에 잇는 태평양로동조합과 련락을취하야 조선안으로 드러와서『카페』『빠』가튼곳을 련락장소로 녀급을『레포』또는『하우스킵퍼』로 리용하야 동지 안창대(安昌大)·최상호(崔相浩)등을 획득한후 사변간이나 교묘히 지하에 숨어잇서 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각공장에『멤버』올회득하려고 맹렬한 운동을하다가 드듸여 종로서에 검거된것으로 송국된사람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가다

▲市外新孔德里三三 金承塤(三三)
▲市內花園町七九 安昌大(二五)
▲市外阿峴里三八九 崔相浩(二六)
▲同淸涼里八八 李孝貞(女)(二二)
▲咸南 柳海吉(女)(二二)
▲市內苑洞四 金順萬(二七)
▲同寬勳洞二九 姜敬子(女)(二七)
▲同水標町四三 柳杉夢(二二)

運動資金을엇고저 病院을開設活動
赤色勞動組合組織에奔走하든
西大門事件의內容


◇서대문사건의 문제의 중앙의원

별항사건가운데 서대문서의것은 지난구월 이십오일 사단대항연습을 압두고 특별경계를 시작하야 과거의 좌익운동자의 행방을조사하든 서대문서에서 수원(水原)의 백명흠(白明欽)이가 경성에 와서잇는것을 탐지하고 그날밤 화천정(和泉町)제일려관(第一旅館)을 엄습하고 그를검거하여 류치취조한데서 사건의 단서가 탈로가 되것이다 이사건은 범죄상으로보면 그저보통 적색로동조합의 조직운동에 불과하나 그준비 공작인 운동예금관계에 잇서서는 전례에 업는독특한것이 잇다 즉 백명흠이가 운동자금 칠백원과 홍순행(洪淳澳)이가 이백원해서 도합 구백원을가지고 금년 이월하순에 수원으로부터 경성으로 올라와 운동을 회책하고잇섯는데 한편 전일『서울청년회』의 한멤버ー이든 안준(安峻)의 아들안승락(安承樂)이가 역시적색로동조합의 조직을 회책하고잇든중 전기 백명흠등이 운동자금을 가지고 잇는것을 그의어떤동지에게서 듯고 그를 끌어드리어 금년 삼월 하순에 종로탑골공원압해서 그돈 구백원을 가두련락의 수단으로 백명흠에게서 바더가지고 그돈을 운동자금에 즉접 소비하지아니하고 동오월초순경에 의사권모(權某)를 식혀서 종로삼정목 칠번지에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개업하게한후 안승락은 그회계와수금의 책임을 마럿다 그리하야 그수익으로써 자금을삼어가지고 백명흠 홍순행(洪淳澳) 안임균(安任均)외에 두명을 대창직물(大昌織物) 동수제사(同水製絲) 암촌제사(岩村製絲)등 여러공장에 드려보내어 로동자세포를획득하야 좌익적색로동조합의 조직을 거지형성하게 되엇든것이다 그리하든끄테 전기와가티 백명흠이 검거되면서 사건이탈로가 되것이다 그리고 이사건의 지도인물인 안승락은 그동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지하의 리론가로써 극히 볼쉬비키ー적인데대하야 취조의 계원들도 놀래다고한다 다음송국된 관계자 다섯명은 다음과갓다

▲慶南昌原郡上南面退村里 安承樂(二七)
▲咸南洪原郡龍泉面龍山里
▲水原郡城湖面細柳里 安任均(二六)
▲同 白朝欽(二七)
▲同 上 洪鍾甲(二四)
▲同 上 洪淳澳(二七)

義州惠山鎭間 國境道路竣工

【平壤】평양토목출장소에서는 대정십이년부터 총공비 칠백수십만원을드려 신의주(新義州)에서 혜산진(惠山鎭)까지의 국경도로를개척중이든바 준공되여 시월칠일 준공식을거행햇다 이공사는 국경도로중 최난관이라하는곳으로 공비삼십칠만 일천여원을 요하야 일키로에 일만이천여원을 햇다 이도로의 개통으로일대 주민은 국히편리하게될터이다

三次共靑事件 送局은越年
八十餘名留置場送年

【咸興】『루보』한흥, 정평(定平), 함흥, 량서엔 류치되어잇는제삼차공산청년동맹(共靑同盟)사건의 팔십오륙명은 이달조순경에 전반적취조를마치고 금년내로 송국하려고 함흥법원검사국과 수차 타협을 거듭하고잇든바 검사국에서 다른여러가지 사건이폭주하여 취조할여가가업다하여 결국은 금년내로는 송국할수업고 경찰서류치장에서 한해를 넘기게되리라고한다

同情週間의義損 各方面에서續續提供

령하이십도 전후의 혹독한추위와 한해의 마감을하는 변말을당하야 치위와주림에 떨고잇는 시내의세궁민 삼만칠천여명을 위하야 한때의요긔라도 식이고자 경성부사회과에서 모집중인동정주간(同情週間)의 긔부금은지난 십삼일까지의 총액은 구백십칠원인데 그후에 일원이상의 의연은 다음과갓다 ▲鐵道局雇員人事係所二百圓 ▲阿部光助百圓 ▲船山無名氏百圓 ▲關大瀬百圓 ▲元島涼百圓

權榮台等判決 二十一日言渡

리재유(李載裕)며 서대교수 삼택녹지조(三宅鹿之助)등이 관계된 적색로동조합관계의 권영태(權榮台)정태식(鄭泰植)등 설흔네명에대한 언도공판은 오는이십일일로 확정이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각피고에게 이미기일통지를 발송하엿다

女子를嘲弄타가 빰맛고監禁暴行
밤중행길에발호하는불량배
昨夜竹添町의騷動

지나가는 여자에게 에로행동을 하다가 필경 감금까지한 불량배가잇섯다 십오일오후 열시쯤해서 시내 적선동(積善洞)사는 김모(金某)(二二)와 시외 돈암리(敦岩里) 리모(李某)(二三)의 두여자가 죽첨정(竹添町)일정목사번지앞을 지날지음에 동사십구번지에 거주하는 리관복(李寬福)(二七)이라는자가 그의친구 김욱진과 한가지로 여자들의뒤를 따려가며 조롱을하고 음란한 행동까지하다가 그여자에게 빰을 한대 보기조케 어더 마진것이 분햇든지 두여자를 길염헤 잇는 경서사진관(京西寫眞館)으로 끌고 드러가 문을 잠그고 폭행을 하려든것을 소관 서대문서원이 달려가서 리관복을검속하엿는데 공범인 김욱진은도망을 가바렷스므로 각처에 수배하는동시에 리관복을 류치하여두고 엄중취조중이다

同胞敎育滿國移管 在滿學父兄蹶起反對
滿鐵會社側에도交涉

만주의 치외법권 철폐와 동시에재만조선인의 교육행정이 만철(滿鐵)측으로부터 만주국에이관된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만주국에 이관하게되면 소위조선인 교육의 만주화가문제가될터임으로 재만조선인은 이에반대하야 일전에만철연선각보통학교부형이 신경(新京)에모히어 보통학교는 치외법권철폐후라도 만철에서 관리하여주도록 진정하기로 결의하고 학부형회련합총회에서는 대표자로 지석모(池錫模)김병갑(金秉甲)량씨가 만철 당국자를 방문하고 전긔에 대하야 진정하엿는바 만철에서도 치외법권 철폐후라도 어떠한형식으로든지 만철에서경영하게되면 그만이지만 만일 그러치못하야 만주국에 이관하더래도 매우 조흔조건으로 이관하게 힘스겟다는 답변을 어더 당분간형세를 관망하게되엿다한다

今日、賞與金發令 總督府側百五十萬圓
現金支給二、三日內로

금년말상여금은 십륙일에 발령되엇는데 그중에 총독부는 우로는 칙임관이하 용인까지 일천칠백명에 대하야 고원판임관은 평균이십삼할 고등관은 평균이십일할이다 최고는 우도(宇垣)내무국장의 천원이라하며 현금의 지불은 십일중이라한다 그리고 총독부의 상여금 총액은 백십오만원인데 이에 철도, 전매, 체신의 삼외국(外局)의것을 합하면 총액 약백오십만원이다

京城府엔 十二萬圓

연말을당하야 봉급생활자의 유일한 위로거리『뽀나스』는 십륙일오후한시에 경성부의『뽀나스』소식 — 경성부의 청원 일천삼백륙십이인에게 칠일에 지급키로 되엿는데 그 금액은 십일만칠천원이다 그자세한 세별을보면 주사(主事)기사(技師)급은 삼십명에 평균십오할이고 서긔(書記) 리원(吏員)급은 이백삼십오인에 십할평균이며 고원(雇員)급은 백사십칠인에 십할 평균이며 용인(傭人)급은 칠백오십명에 이십할평균인데 작년에비하야서는 약일할가량 적다고하야 하급공원간에는섭섭한긔색이보엿다

運動競技

活氣띄울大同江氷上 待望의京平對抗
一月十一日에開催豫定
練光俱定總에서決定

【平壤】平壤氷上界의鬪兒 練光氷俱樂部에서는 十五日午後七時부터 府內巡營里 本社平壤支局會議室에서 今年度定期總會를 開催한後 臨時議長 朴應根氏의 司會로 任員改選을 爲始하여 今後의事業進行에對한 討議가잇섯는데 京城白狗俱樂部와의 第五回京平對抗戰을 本社後援으로平壤에서 開催하게되엿고 第五回全平壤男女市民氷上競技大會도 同時에 開催키로 決議되엿다 이밧게 東京평원俱樂部招聘戰도 擧行하기로되여 以上各主催에 對한 準備工作을 開始키로되여 今年平壤大同江上에는 壯快한 競技가 續續될것으로 벌서부터 人氣는『스케이팅』에 集中되고잇다

◇…京平對抗戰 本社後援의 第五回京平對抗戰은 明年一月十一日(土曜日)午前十時부터 練光下練光俱樂部링크에서 擧行하기로可決하고 準備委員으로 金泰燮 金守珏 咸明春 韓龍浩 朴仁楨等五氏를 選擧햇다『링크』는 四百米『세파레ー트·코ー스』로 決定되엿다

◇…第五回市民競技 練光俱樂部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開催되는 第五回全平壤男女市民氷上競技大會는 十一日午前十時부터 京平戰과同時에 擧行하기로되엿다

新義州高普軍 日光遠征
全日本中等氷上에

우리中等氷上界의 覇者! 新義州高普에서는 來二十七、八兩日間日光細尾링크에서 열리는 全日本中等氷上競技大會에 出場케되여 方今安東縣六道溝링크에서猛練習을 거듭하고잇다는바 一行의陣容은 中等長距離의 雨雄李英甲(主將)、柳藤來兩君을 비롯하야 金能命、李正殷等四選手로서 同軍의 飛躍的活躍이 벌서부터 期待된다

世界마라손王 "자바라"受難
아마資格停止

第十回世界올림픽大會가 米國『로스·안젤스』에서 열릴때 마라손競走에 優勝權을 爭奪한 亞爾然丁國의『자바라』選手가 明年獨逸伯林大會에잇서서 再次制覇를 꿈꾸면서 練習中이라함은 旣報하엿거니와『자바라』에게는 생각지도안튼 悲報가 들니고잇스니 그것은 國際陸上競技聯盟이『자바라』의 아마튜어競技者資格을停止하는同時에 國際陸聯加盟國의競技會에 出場하는것을不許한다는 通告가 잇슴이다 이報告에依하건대 亞爾然丁陸上聯盟에서의申告에依한것으로 其報告는 다만『스뽀ー지우·파라가스俱樂部』멤버인『자바라』의資格을 一時停止한다는것뿐으로 理由는 웬일인지 判然치안흐나 아마도『자바라』가 渡歐할때에 亞爾然丁陸聯의資格證明書及 海外競技出場許可證을엇지안코 다만大統領으로부터 補助金만바더가지고 出發하엿슴으로 自國陸上聯盟을無視하야 獨斷的行動에나갓데서 그와가튼制裁를밧게된것으로 追想되는데 亞爾然丁陸聯도 國際陸聯의 不動憲法에는 엇절수업게되엿다 올림픽史上에 前人未到의 마라손連覇를 目標로 邁進하고잇든『자바라』에게는 쓰라린逆運이다 前者에 아마추어規定에 抵觸한 兩選手는 누르미(芬)와 라즈메ー그(佛)이다

職業野球米國遠征

日本職業野球團(東京巨人軍)第二回米國遠征은 明年二月十四日橫濱出帆의秩父丸으로出發途中布哇에서 七回乃至十回의試合을行하고 其後로 太平洋沿岸에轉戰하야 桑港、『ー』、『판구ー파』를中心삼어 約七十回의試合을行한後 六月五日에 歸國할豫定인데 前記遠征軍의 陣容은 從來의멤버中 數名의選手를交換하야 新陣容으로 一月上旬부터 谷津球場에서 冬期練習을 行할터이라한다

東西學生蹴球 早大軍快勝

【東京電話電通】世界올림픽派遣代表選拔에 重要한 參考資料가 될 第七回東西學生蹴球爭霸…早大對關西學院의 試合은 十五日午後二時부터 神宮競技場에서 早大킥어프로 開始한바 結局十一對二로 早大快勝하엿다 이리하야 關東은 四年連勝하엿다

早大 11 (7 5 … 1 1) 2 關學

農村工場中心 高敞의結社
關係者九名送局

【井邑】전남고창무장지방(高敞茂長地方)을 중심으로 조직된 적색비밀결사사건의 주모김명환(金明桓)(三七)과 강학수(姜鶴秀)외륙명은 지난사월경에 정읍경찰서 고등계에 검거되어 이래 만구개월이라는 장시일을 두고 엄중취조중이든바 일단락을짓고 일건서류와함께 지난 십일전주(全州)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국에 넘기어 잇다는데 일년만 서방이되고 구속자필명과 불구속자 십삼명이라하며 석방자와 송국된 인물의씨명은 다음과갓다

◇送局者氏名 金明桓(三七)姜鶴秀 金容洪(二七)李殷淑

◆釋放者 氏名 金容善 金容寅 金容泰 曹慈欽

사건은 주모 김명환을 선두로

間共控訴審 審理大略終了
十八日頃엔檢事求刑

사형판결을바든 이십이명의 간도공산당(間共)사건 공소공판은 십륙일에 계속하야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담임 향천(香川)검사입회로 개정되엇는데 좌기 일곱명의 심리를 당일까지 마치고 십팔일부터는 검사의 론고구형과 각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 될터이다

▲朴金哲 ▲閔昌植 ▲崔東律 ▲高河鎭 ▲池遇浩 ▲金應洙 ▲金■龍

顚覆된漁船의 六名全部救助

【釜山】부산부외 암남리(岩南里)에잇는 암남어업조합(岩南漁業組合)소유의 어선륙척이 지난십오일 오전칠시경 고기를잡으려고 부산항외 오도(五島)형제도(兄弟島)근방을 통과할지음에 격랑으로 말미암아 그중일척이 전복하야 어부륙명이 해중에 떠러젓섯는데 다른배 어부들이 구조할려고 가진애를 썻스나 풍랑이 심하야 구조를 못하고 급보를 접한 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경비선에 서원수명이 타고 현장에급행하야서 동시경에 근근히 구조를하얏다한다 그리고 손해액 기타는 동서에서 방금 조사중인데 약오륙백원가량이라고한다

天氣豫報

低氣壓은 오호츠크海에잇고大陸高氣壓은 東편으로 移動하야 滿洲、朝鮮國境으로부터黃海에 떠지고잇스나 그勢力이 주러젓다 滿洲、朝鮮은 晴曇不定이고 치위는 多少緩和되엿고 西日本은 日氣가조코東北地方以北은 흐리고 處處에降雪이잇고 바람은弱하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바람이 弱하고 흐리다 明日도 今夜와갓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零下四度二
最低 零下十一度五
今朝 零下十二度六
正午 零下三度三

松の實 キャラメル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高尙한社會奉仕의意義잇는大事業進出
偉大한二大工業依頼함
第一 분의工業 家庭用品製造
第二 信用의事業 輸出
內外貿易 株式會社
石堀農機製作所

自轉ランプ、電球各種卸 定價表進呈 京城府本町四ノ八四 御商 西原商店

㊉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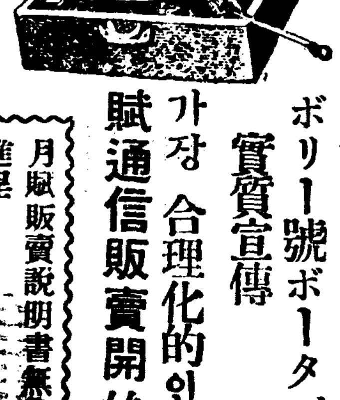
昌信旅館 京城貫鐵洞一三六 電光二四六三番

恩給 利信用으로 特色은照會回答 京城府櫻恩洞一六〇 鄭商會

はれやか

速히 낫는 淋疾藥 루ー베리 特製
藥價 二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全國到處ノ藥店ニアリ
골음、압흠 꼿꼿침

月賦 通信 販賣
蓄音器界空前의大英斷!
日本서最初의蓄音器
月賦販賣!
ポリー號ポータブル
實質宣傳
가장 合理化的인 月賦通信販賣開始
初回에는단 八圓으로高級ポータブル一臺及 레코ー드三枚針四百本을들님업시 드립니다
月賦販賣說明書無代進呈
說明書申込處 名古屋市東區西魚町三 合名會社 近藤商店宣傳部



副業에紙袋製造
大阪市天王寺區堀越町四二番地(アベノ橋北一丁)
合名會社 江商製袋工業所
電話天王寺三六一七番 振替大阪一三八〇五、八一〇六七

腫氣 靑山膏 에옹 히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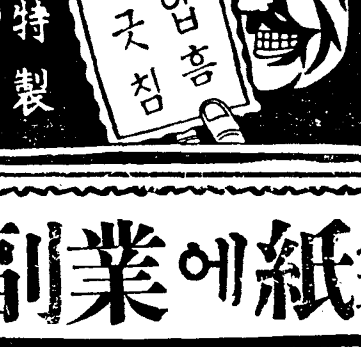
하下 혈血 患者여

謹告
金山寺彌勒佛改造佛事에對하야 寄附金募集委員은 黃成烈、金極仁、鞠昌容、柳在煥、鄭泰謨、金鍾悅、柳勝智、金富坤、李禮任、九員이오此外人은無効이오니 僉位는照諒하심을敬要
金山寺住持黃成烈、 總化主金水坤 謹白

櫻正宗
歲末御贈答用 新春の御用 最上

十二月十五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半
◇M、G、M社超特作映畵 로ー버ー드、몬드고메리 主演
사랑의隱避所
◇英亞민社超特作映畵
夕暮의노래
PCL發聲映畵
涙の母
男子의敵

當十七日ヨリ三日間 歲末大奉仕! 二十錢均一階下席
全勝新興!!最も面白い新興映畵
巨人街
性は丹下名は茶膳
永樂町 中央館
團成社



秋冬星象 ③
南方妖精인怪馬
안드레公主의一縷殘命
安在鴻

×

白鳥와 카시오페아」의 사이 月下에서 北極의南에 位한 五帝座의 中央宮星을 비롯하야 造父 王良과 策과 閣道等의 모든 별들을 아울러 케페우스의王座로 되엇스니 그 光 度 가 카시오페아」의 다음으로 그中의 네큰별이 梯形을 이루어 케페우스王의 上體로 되엇고 北極星은 그발판으로 되엇다 이지음의 北極星은 紫微垣을 北으로업어밤은당빗이 閃閃히 잔별들씻처 또렷하게 눈에뜨우는者어니와 東西의 天文學이 이位置에 한가지로 帝王의자리로 삼은것은 興味잇다 그러나 세페우스王과 카시오페아王妃의 사이에는 箏中寶玉가튼 안드로메다公主가 …로부터 『에디오피아』 온나라에는 王宮을中心으로 大災難이 부른터낫섯고 지금까지 天界에 솟령대는 三話題를 남겨오는것이다 이를말하자면 메까수스와 『안드로메다』까지 이야기하여야한다

女 여름하늘에서 어미말한 牛

諸 宿 은 이지음(十二月十七日午後七時)어도 오히려 牽牛星의 南下에 떠잇다 女宿에서 東으로한 間 남짓떠나 同水瓶座의 B星三等과 北斗에서 『망아지座』의 A星(五等)을 合하면 虛宿니 虛宿星說에는 虛角二星으로 行綴된바이나 現代에서는 자못 微微한者이오 게서다시 東으로 한間에 두개의 明朗한별(一二等)이 東에서 잣칫적은 한 별을 鈍角으로 놋고 길죽한 三角을 形成한者는 危宿니 下는 永瓶座의 A星이오 上은 메까수스」의 F(에프)星이다 虛星의 東側에는 司命 司祿으로 일것는 잔별들이 잇고 危宿의 南東에는 墳墓 虛梁 모든 별이 잇으되 그中에는 燦然하게 빗을 쏘는者도 잇어

南 斗 以來의 처음 繁華한 景像이 오거니와 北에닥어 다시 東으로 빗속 二三等의 세별이 北으로 휘유든 東 어는者는 即『안드로메다』의 네큰별이 잇스니 『메까수스』이다 『메까수스』의 怪奇한광은 京城의 거리에서도 『개솔령·꼴』의 모련的인 차림과 함께보게 되는 터이지만 대만 번뜻한 四角의 星象만으로도 가을하늘 隨一의 傑作이다 이 四角의 西邊두별은 室宿로서 혹營室로 일커르니 離宮 여섯별이 附屬되엇고 東邊두별은 壁宿혹 東壁이니 斗牛女虛危室壁이 中國所謂 北方七宿로서 斗가 龜蛇纏結之象인것을 筆頭로 虛危室壁은 …之象이라고 처서 女武神의 出現이즐로 뎌이든 바이오

×

西 洋 天文學에서는 이로서南方의 妖精인 女怪 메소사』의 피가얼켜도섭한怪馬라고 하는것도 다르면서 또가른者이다

×

이제 四角形이 怪馬의 날개도친 軀體인데 虛와危는 모다그頭頸으로 되엇고 東壁인 A(北一멜에서 다시 二三等의 세별이 北으로 휘유듬東에 빼는者는 即『안드로메다』ㅡ이다 카시오페아王妃는虛榮心이만코 또 수다스럽기도 有名하더니 마조羣에서잇는네안드로메다公主를 귀엽노라고 性懷히 처다보며 自己의美도 그러하려니와 안드로 아기씨의 豐艷한美로 말하자면 世界中에 어데를가든지 다시어들수 업슬것은 무론이오

地 中 海의 미창에서 사는 아름다운 女神 『넘프』따위로도 훨신 못할 것이라고 막짓거러 대엿든것이다 女神들은 시새우는 암상에 못견대어 이를 海神에게 하소하엿고 海神은 또한 激怒하야 王의 一門에게 지독한 處分을 하기로하엿섯다 그들은 엄청나는 洪水를 이르키어『에디오피아』의 領地와 한꺼번에 잡거버리고 王의 一門은 바다의怪物인 고래로 삼켜 버리게 하려하엿다『에디오피아』의親빈은 震駭하엿다 카시오페아后도 痛嘆하엿다 神과神의 殘忍이 『쥬피터』神에게 등장들고 원정한結果 간신히 海神의諒步를 어더 問題의 發端은 『안드로메다』 애기씨를 참혹히 고래 밥으로 내어맛기어 이

災 難 을 푸리하기로 하엿다 國民들은 洪水의 우환을가삿으로 벗게되엇스나 『안드로메다』는 가엽게도 王을쇠동아줄로 쳣처매어 밀물이 드리닥치는 海岸의 낭떠러지 밋 바위부다구니에 잡어매이우게되어 父母가 눈물짓는 斷腸의悲哀도 생각할새어 이 부즈러시 고래의 몰려오만 가슴조혀 기대리게 되엇섯다

지난一年間의 朝鮮演劇界總決算
特히戲曲을中心으로 ③
柳致眞

압해도 말하얏지마는 今年에 들어서 朝鮮創作戲曲을위한 조흔傾向이 朝鮮劇界에 나타낫다. 從來 朝鮮演劇運動에서는 外國劇을 上場하고잇스면 그營養素아래서 自然發生的으로 創作戲曲이 產出될것을 밋고와섯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아는바와 가티 되도록만히 外國劇의

一攝養一 에만 힘썻다. 그러나 그結果에잇서서 成績이 如意치를 못하얏다. 그理由의 一은 本來作家에게 戲曲을 쓰려는 熱心이不足하엿든것이 主因일것이나, 하여튼 그後 조흔戲曲의 創作이 나지안흔것은 事實이다. 여기에서 今年에는 劇硏을비롯하야 東京學生藝術座等에서 直接 創作戲曲振興에 參與하야보겟다는 宣言을내어걸고 나왓다. 即 여태까지의 方式으로 自然發生的으로 생기는 戲曲만바라고안젓다가는 암길이 너무暗澹해서 안되겟다는것이다. 되든 안되든 可及的成功을 바라고 創作戲曲의 積極的振興工作에 힘쓰자. 그리하야 그『레파토리』에 創作劇을 爲主로하고 作家에게 한 刺戟을 주는同時에 劇壇的으로 그 方針이 얼마나한成果를 거둘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創作戲曲을 爲한 눈물겨운一그리고 最後의 발버둥임에 틀림업다. 이와가티 實際劇場人이 積極的活動을 시작할때에 依然히 作家가

一戲曲一 創作에 그祭을 내주지안는다면 戲曲供給의不况이 如前히 持續될것은 勿論이다. 或者는 戲曲의 發展도 演劇團體의確立一더구나 經濟力의確立이 압서지안는以上 絶對로바랠수업는일이라고 하기로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외 絶對必要를 느끼면서도 朝鮮의 只今 形便으로서는 오히려 氣魄잇는 劇作品이 나오지안는以上 經濟力도 演劇團體의 確立도 바랠수 업는일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그럼으로 日後의 朝鮮演劇運動의 發展은 오로지 劇作家의努力의如何에 달녀잇는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나는 생각한다. 今年에發表된 戲曲에서 그共通되는傾向이라는것을말하여보고저한다. 大體로 우리의戲曲界는 아즉 그主潮되는것을 차자내기에는 너무도 過去가 업다. 그러나 구태여 今年에잇서서의 그共通되어잇는 傾向을 摘出해본다면 다음과갓다. 戲曲의取題에잇서서 今年에도 朝鮮의沒落相을 그린것이 大部分이엇다.

一作品一 을들어具體的으로 例示해본다면 『나루터로성낭』『줄행낭에사는 사람들』『소당나귀』等等이 그것일것이다. 이들作品中에는 그沒落相을 直接데-마로한것도잇고 間接데-마로한것도 잇지마는 그 直接間接의差만은 다르나, 하여튼 沒落相에 取題한作品이 大半인것만은 事實이다. 오히려 이消極面을그리는 傾向은 例年에比하면 今年은 조금稀薄해진便이라고하겟다. 事實 『아리랑』『土幕』等을 筆頭로하야 最近四五年來로 얼마나만흔 沒落相이 우리눈에 作品으로 展開되어섯든지? 朝鮮의戲曲이라면 大槪가 봇다리를 싸짊머지고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것이 아니엇든가? ●

今年에도 그런類의것이 업지안혓다. 그러나 今年으로부터 차츰 그런取題傾向이 적어지려는 것을(적어진것은아니지만) 우리는 안볼수업다. 이와가티 作品으로 朝鮮의消極面을 그리려는 傾向이 차츰 적어지려는

一理由一 는 그러면 되서온것일까? 어社會的情勢가 그만큼 明朗해진 때문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作家自身이 그런消極面만보고잇다가는 그것은 作家로서의 停滯에 不過한줄을 알게된것이아닐까한다. 그리고 今年에와서 섭섭한것은 年前까지 戲曲을쓰시든분, (혹은쓰려고하시든분)蔡萬植 趙容萬 李石薰 金起林 兪鎭午等諸氏가 今年에는 너무 沈默을 지키고잇는것이다. 新年부터서의 活動을바라고 마지안는다. (끗)

海西紀行 ⑨
朴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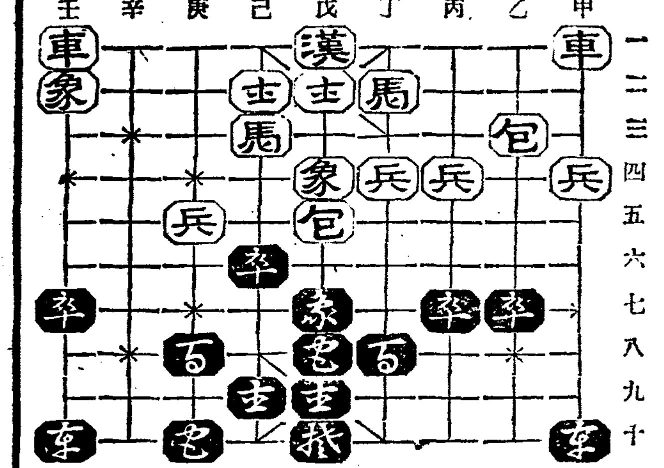
栗谷의 後裔인 李氏는 나를 방안으로 들어오라하고 그의 두 子婦를 불너서 인사를 식입니다. 나는 그들과 례를 치른後 색씨 선보려온 총각이나 처럼 손곳하고 안저잇는 그들의 얼골을 이리 저리 잽싸게 훌터보앗습니다. 指粉이 올으지아니한. 그들의 얼굴은 이곳의 공기처럼 맑고 고왓스며 때무든 무명치마저고리를 입은 그들의 몸맵시는 이곳의 山름처럼 그러케 優雅하엿습니다. 까끔 말하는 그말소리곳 차이압시내물소리가티 은근하고 부드러움에서나는 황홀한 눈동자를 굴니지안흘수 업섯습니다. 李氏가 九曲의 그림을 내여 구경식히고 栗谷의 어머니 師姙堂申氏의 筆蹟과 栗谷의 親筆인 經筵日記를 꺼내서 說明하는동안 한夫人은 시아버님의命令을조차 주머만듬식한 홍시감과 궁만듬식한 밤을내왓습니다 나는 紅玉처럼 透明한 감한개를 들어먹으면서 仙果나 먹는듯한 誇張을 맘속으로 해봣습니다. 다시 밤한개를 집으며 『四曲松崖 저ㅣ쪽으로 펵조흔 경치가 잇는대 그건웨 九曲에못들엇나요』 하고 아까부터의 疑問을 겨어코 내뿜고말엇습니다. 李氏는눈을 둥그러케뜨며 『그게 四曲松崖지요. 너 어디갓댓니?』 하고 靑年을 처다봄니다. 나도 무안해하며 부끄러운듯 서잇는 靑年을 처다보며 『아니 가기야 거기까지 갓섯지오』 하고 말끗을 흐리면서 스사로 내推測의 正當한것을 기특하게 여엿습니다. 이때문득 솔바람소리가 웅ㅡ하고들녀옵니다. 『그런대 여기 솔나무들은 다른대 솔나무보다 별나게 크고 퍼러코……』 하는 내말이 긋나기전에 李氏는 『그게어디 솔나문가?다 잣나무지』 『네?잣나무요?』 하고 나는 뭘듯이 깜짝 놀냇습니다. 시아버님의 령을 따라 점은부인은 방긋이 웃고이러나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크나큰 잣송이 하나를 가지고와서 나를줍니다. 잣송이야 전에도 더러봣지만 잣나무는 그림에서만 보앗든터이라 그림으로만 볼수잇슬줄 알엇든 그잣나무를 참으로 만저볼수잇다는 호기심에서 나는 그들에게 바삐 하직하고 박게나와서 다룽질노 잣나무속으로 들어갓습니다. 때마침 겨울!松栢의 계절을 자랑할때는 正히 이때!하늘을 찌를듯이 놉히서잇는 숲속에서는 아모리 처다보아야 아측도 뭇허잇는 잣송이외에 한조각의 하늘이나마 보이지안엇습니다 잣나무의 壯嚴하고 神秘로운 찬그늘에안겨 끗업는 瞑想에 잡기고십것만 멀즉이 서잇는 靑年의 치워할것을 생각하고, 松栢의山을 되넘어自働車가 停留할 정방을 향하야걸어올수밧게 업섯습니다. 儒人에對한 한 적은禮라 생각하고 나는 靑年에게 한되의 淸酒를 들녀 李氏에게 보내며 하로의 길벗을 섭섭히 작별하고 때마침 달녀오는 海州行自働車에 올나탓습니다. 自働車 창밧그로 三曲翠屏의 그림가티 고흔 姿態와 터덜니 아득하게 보이는ㅣ이제는 水利組合의 貯水池에 완전이 그몸을 잠겨버린ㅣ一曲冠巖과 二曲花巖의 자최를 바라보면서 栗谷의 九曲詩中 가장 내가 조하하는 二曲詩를 誦어 하직을 하엿습니다.

二曲은 어드메고 花巖에 春晩커다
碧波에 꼿츨띄워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를 몰으니 알게한들 어떠리.

將棋名手對局譜 (四)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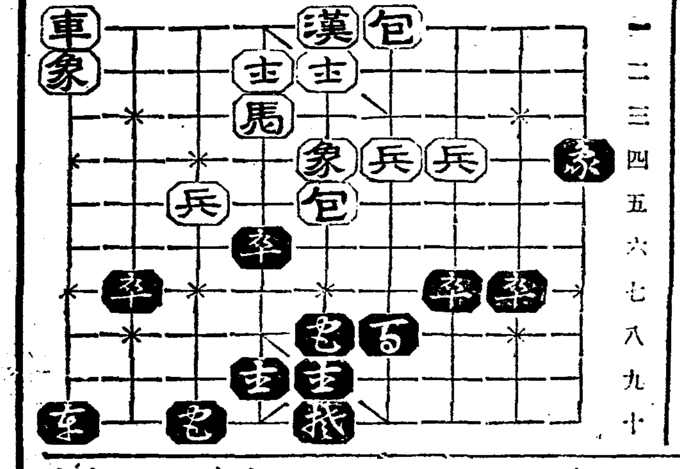
楚先手 李在鳳 (象一減)　漢 丁奎東

◀三十手圖▶



◀四十手圖▶

戊七ㅡ庚四
乙三ㅡ庚三
庚四ㅡ丁三打馬
庚三ㅡ庚八打馬
甲十ㅡ甲四打兵
甲一ㅡ甲四打車
丁二ㅡ甲四打車
庚八ㅡ庚一
壬七ㅡ辛七
庚五ㅡ丁二



新刊紹介

▲佛教時報 第五號 京城府館洞五의三七 佛教時報社發行 振替京城一三六八四三番 定價一部十錢
▲新生命新刊號 京城府寬勳町九ㅡ新生命社發行 振替京城五四四四番 定價二十錢
▲文化農報 十二月號 東京市麴町區丸の內一ノ八 文化農報社發行 振替東京七三三六四番 定價二十錢
▲月刊野談 第十四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二一八二二番 定價二十錢
▲更生十二月號 廣島縣京橋町 本部十字街廣島支部京橋旅舍內 更生社發行 振替大阪七七五三一二番 定價十五錢
▲湖南評論 送年號 京城府樂園洞二〇六 湖南評論社京城支社發行 定價二十錢 送料五厘
▲ピタカ 十二月號 東京市本鄕區三丁目 大藏出版株式會社發行 振替東京五一六八四番 定價二十錢

黑風 【202】
韓龍雲 作　金珽超 畵

복수(復讐) 11

그뿐아니라 왕한에게는 무슨 징거될만한일이 업스나 마둥이는 한푼것업시 자동차운전수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상년동안에 십여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잇슨즉 그것이 징거될만한 일이엇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콜난의눈을 피하야볼까 하얏스나 그것도 나종일이 염려되야서 해결방법이 아니엇다 마둥은 일이 그러케된 이상 우물쭈물하고 말게 될수도 업는 형편이오 또는 언제까지심려만하고 잇슬수도 업는일이므로 부르든김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드러내노코 해결을 지으랴고 생각하는중에 마침 왕한이가 광동으로가고 콜난이 혼저 남어잇게 되므로 그것을기회삼어서 해결방침을 결정하얏다 마둥은 밤이 이슥한뒤에 자기의손을 스스로 결박 하얏다그리하고 콜난의 방문압헤 가서지칩을 두어번 하얏다 콜난은왕한에게 대한일을 생각하기에골몰하다가 문밧게서 지침소리가 나는것을 듯고서 마음을 모아서누구의 지침소린가 하얏스나 아르체하지 아니하얏다

『주무십니까?』

하는 마둥의말에

『누구요?』

하는 콜난은 차질사람이 업는대 누가 찻는가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얏다

『나는 이집 주인입니다 엿줄 말슴이 잇는대 조곰 드러가도 관계업겟습니까?』

『무슨 말슴인지 거기서해도 관계업습니다 부득이 드러와서 할말이며는 밝는날 와서 하시지오』

는 사내를 혼저잇는 방에 드리는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얏다

『상해에 계신 장대인대 아씨지오』

마둥은 거저는 콜난이와 면회할수가 업겟스므로 아는사람이라는것을 표시하얏다

그제서야 콜난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창옷열고 내다보앗다 콜난은 자기집에 자동차 운전수로 잇는 사람을 몰나볼리가 업고 언제든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마둥이라고 생각하야서 자나 깨나 잇지아니하든 마둥의 얼굴을 모를리가 업섯다 콜난은 마둥을 보자마자 눈에서 불이번쩍 나면서 치가 떨려서 어찌할줄을 모르다

『참나지 마시고 소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대인의 원수를 일러드릴테니 조용히 저의말슴을 드러주십시오 저는 [illegible] 결박하얏사오니(결박한손을 뵈이면서)저에게 대하야는 조곰도 염려치 마십시오 조곰 드러가서 선대인의 원수갑흘 도리를 말슴하야 드리겟습니다』

마둥은 콜난의 당황하야하는 거동을 보고 머리를 쏘아가며 간절히 말하얏다

콜난은 마둥의 두손을 결박한것이라든지 말하는 거동이 이상하고 운전수가 자기아버지를 죽엿스리라고 생각한것은 추치에 불과하얏는터로 마둥이가 자긔아버지의 원수를 아르켜주고 또는 그원수를 갑흘도리를 말하겟다고하는바에 그말을 듯지아니하랴고 할리가 업는것이엇다

『정말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일러줄려여?』

『일러드리고 말고요 그러치안흐면 웨 제가 이럭케 와서 말슴하겟습니까』

『그럼 이리 드러오』

하는 콜난의 마음을 져옥이 진정되얏스나 그래도 숨이 헐덕이고 몸이 떨렷다 방으로 드러가서 안는 마둥은 무거운짐이나 버서논듯이

『후유!』

『조곰도 염려마시고 저의말슴을 드르십시오 자세한 말슴을 하겟습니다』

마둥은아직도 놀난 가슴을 헐덕이면서 의심스런 눈으로 자기를보는 콜난을 보면서 먼저 위로하얏다

眩氣에 はれやか(하레야가)!

菊池寛著
戀愛と結婚の書

今すぐ本社へ御申込下さい!
この一冊を讀破した人なら安心して結婚出來る嫁に貰へるお嫁に行きたいと歡喜に踊る投書山積!
發賣即日再版!!

正に花嫁學校の教科書であり、結婚生活の入門書である。その昔徳川時代には、嫁ぎ行く我娘のために母は必らず「閨のお愼しみのこと」といふ本を與へたものだ。是は昭和の「閨のお愼しみのこと」であり、結婚生活百科辭典である「思ひ餘ることがあつたら、何時でもこの本を讀んで、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するんですよ、何んでも書いてありますからね」と云つて、娘に渡すべき只一つの嫁入道具的書物である。

四六版三百頁美本定價壹円五十錢送料十錢・麴町區内幸町大阪ビルモダン日本社振替東京七五一六一二

淋疾及合併症新療法
注射 네오가루고노-겐 (ネオカルゴノーゲン)

迅速히膿을개게하고白濁을清澄케하며疼痛을鎭靜함

淋疾과가티細菌의感染으로因하야 생기는 疾病에는細菌學的療法이가장合理的으로奏效하고淋菌의撲滅이라는根本的治療를 해볼수잇는것이다 그런데從來의 許多한藥劑는化學藥의 힘으로 鎭痛止膿效果를엇기에만汲汲한現狀이다

本劑는 細菌學的治療로 淋菌박진을 主體로삼고게다가消炎, 鎭痛, 防腐의效果가잇는 칼골及우로사민을配合하야 만든것으로서 通常淋菌박친과달라서 獨特한 處理法에依하야 고抗原量을數倍量이나엇다

右와가티本劑는 多數한醫家의 絶讚하시는바로 그臨床實驗에잇서 그偉效를顯出하야 顯著한治療成績을 收得하엿다

◆三ㅡ五回의注射로急性淋疾의疼痛, 排膿, 下腹部膨滿等의 自覺症狀을消滅하고 尿의白濁을淸澄케하야 顯微鏡下에檢査하여도 淋菌의消失를보게된다

特히淋毒性合併症, 睾丸炎, 攝護腺炎, 膀胱炎, 又婦人의 子宮內膜炎, 卵巢炎, 喇叭管炎에는手術할밧게 道理가업든境遇에도本劑의 注射로能히 治療할수가잇다

用法 一回一筒(二C.C.入) 隔日로筋肉內에注射함
包裝 五管入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特約店
京城本町一丁目 山岸藥店
同 二丁目 古城藥店
同 同 北島藥店
同 三丁目 阿部藥店
同 同 森川回天堂藥店
同 南大門通二 木村儀三郎藥店
同 明治町二丁目 新井藥房
釜山府本町 坂井峰太郎藥店
同 辨天町 大矢會松藥店
同 同 大黑屋海堂藥店
同 富平町三丁目 柴田健三郎藥店
馬山府都町 ヤマイ鹽雲堂
石見屋藥局
平壤府大和町 秦名千壽堂藥店
同 同 瀧田草藥堂藥店
同 同 日新堂藥房
同 南大門通り 木下涼藥店
木浦大和町 木下忠藥房
木浦榮山町 伊藤鐵太郎藥店
大邱府大和町一 佐伯仁正堂藥店
同 元町 岡田回春堂
全羅南道光州北門 田島宇藏藥店
全羅北道全州本町 石田濟生堂藥店
元山府本町二丁目 山野藥業堂支店
清津明治町 稲垣日本堂
羅南生駒町 元山旭町 伊藤藥店

短篇小說

惡夢 (十四)

咸大勳 作
夕影 畫

그사진은 어린애를 안은 경숙이와 원경이가 나란히 서고 밧인 중판형의것이엿다。

『퍽어린애가 복스럽지?』

『………』

빼앗든 괴로움을참고 머리만끄덕인채로 영자는 못볼게나본것처럼 나무가지가 비친 물우에로 눈을보냇다

『경숙인 살이 좀올은셈야…』

한참동안이나 그사진을 드려다보며 혼자ㅅ말가티 중얼거리든 원경은 동의를 구하려는듯이

『그럿찬어?』

하고 영자편으로 얼골을돌엿다 그러나 그때 영자의 시선은그 사진에 잇지안코 저먼 못가잔 물결지는 수면우에흐르고잇섯다

『웬일일가?』

이상한 생각이 원경이가슴에검은그림자를 서려노코 안타까운 의문의 수수꺽기는 꼬엇시 줄다름을 치고잇섯다 보면볼수록 영자는 넘우얼혼 사랑갓기도하고 무엇에 미친사람갓기도 하엿다 핼슥한얼골엔 창백한빗이흐르고 영농하든눈조차 안개어린것가티 흐릿해보혓다 지튼입술이며 앙상한 코ㅅ마루며 아모리 자세보아도 그에겐 마음속에 빠저린 비애가 숨어잇는게 분명히 얼골에 색여저잇섯다

『영자 어듸가 압허?』

『아ㅡ니ㅡ……』

힘업시 대답은 햇스나 그순간 영자는 왈칵서름이 북바처오름으로 것잡을수가업다는듯이 또거워오는 눈에 손수건을 댈며 유도업시『으아!』하고 울음을 터트리고 말엇다。

『영자 웬일야 갑작히?』

손등곳을 몰우고 한참동안이나 쩔쩔매든 원경은 겨우 영자등에 손을대고 가볍게 흔들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영자게로 보내엇다 그러나 영자는 아ㅡ모 대답도업시 흐득거 울기만하고 잇섯다。

명랑한봄날! 잔잔한 못우엔 물맴이가 자유로히 돌고잇고 흰나븨 노랑나븨는 꼿가 쌍트는 풀포기위를 행복스레히 날고잇것만 영자의마음은 삼동의치운 밤과도가치 차고 어둡고 쓸쓸하엿다 그러케 행복된 가정인줄은 몰으고 옛사랑 그것만을 밋고서 다시맥즐려든 그인연! 눈물로 리별을하고 다시눈물겹게 만난 그인연! 그것도 한낫무서운명속에 쓸어지고 차듸찬현실은

자긔를 처녀로 애를가게하고 고독의 비한속에 일생을 어둠길로 걸어가야할것을 생각할때 가슴은 찢기고 마음은 괴로웟다。안미더야 올흘 그사내를 밋고 더럽혀서는 안될 처녀의보배를 깨친 자긔 자신에게도 물론 허물이 업는건 아니지만 누가 뜻햇슬가? 그사내 그첫사랑의 옛애인이 다시 자긔를 그러케도 짓밟을줄이야!안이야! 내게는 그이가 첫사랑이지만 그이는 내게 첫사랑이 안엿든걸을 락겟든! 영자는 각가지로 생각을 해보앗스나 쏘다진물처럼 어떠케도리킬수업는 자긔몸이 끗업시더럽고 무섭고 천해보엿다 어머님도 아버지께 속아 하는수업시 첩이란 신세가 되엿섯거니 나는 어떠케 해서라도 정당한 결혼을 해가지고 살려든 그마음어 하늘에도 좋지못한모양! 아! 나는 어떠케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말엇담! 눈물속에 애닯은 한숨을 수엿스나 수면에비친 검은 구름처럼 자긔마음속엔 먹장지른 구름이서리고잇는것 갓헛다

『영자!영자!』

애닯게 부르는 원경이소리 비록 그의오빠는 지금에잇서서 원수가티생각이돼두 원경의 참된 마음으로 이슯어하는 자긔를위무해주는덴 끗업시 감사하지안흘수가 업섯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슯움은 더가슴을터치고 소사올랏다

『글세 무슨일야…영자 내게 못할말이 또잇서?』

우정의 따거운맘에서 소사나온 말소리락 그러치만 이진정을 말할수야잇나?

『어떠튼 사람들이 인두 작구 오는모양인데 그만가요 창피하잔어?』

『ㅡㅡㅡ』

『ㅡㅡ』

『자!일어나요! 어서 응!』

영자는 눈물을씻고 일어섯다。그러나 정신이 갑작히 멤도리친것 가치 어지어지해서 그만 다시 영자는 못가에 주저안고 말엇다

曆

十二月十七日(火)
十一月戊子(大廿二日)
丁卯 火尾平
●祭祀에宜함
●大雪八日(舊月十三日)
●冬至二十二日(舊月廿八日)

라디오

十六日(月曜)

◇午後六時 피아노獨奏 李 慶元
◇同六時二五分 紀念講話 베ㅡ토ㅡ벤의生涯와音樂 延專教授 朴 慶浩
◇同七時三〇分 講演 回想의一年 (一)世界政界 徐 椿
◇同八時(東) 管絃樂—東京音樂學校演奏室로부터中繼—聖譚曲 메시아拔萃…헨델作曲 合唱·東京音樂學校 生徒 管絃樂·東京音樂學校管絃樂團 指揮·크라우스플링스하임
◇同八時四〇分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孔明歌 三、방아타령 四、양산도 五、노래가락 金 逸淳 朴 彩鳳
◇同九時一分 講書 一、後赤壁賦 二、竹樓記 金 元 鎭

十七日(火曜)

◇午後〇時五分 (六)첼로獨奏와 맨돌린四重奏 一、첼로獨奏 (가)코ㅡ로니도라이ㅡ브루흐作曲 (나)夢後에ㅡ포ㅡ레作曲 (다)뮤젯토ㅡ드·라베르느…쿠ㅡ프랑作曲 二、맨돌린四重奏 四重奏曲…카라ㅡ체作曲 라르고, 아떼ㅡ토ㅡ조칸쏘네타 스케르쏘·피날레
첼로 伊達 三郎
피아노伴奏 伊達 節子
第一맨돌린 富田 艶子
第二맨돌린 山 靜 江
맨도라레노레 志方 吉雄
[illegible]……트 富田 勇吉
◇同一時三〇分 講演 府民館中講堂—朝鮮敎育會主催講演會場으로부터中繼 朝鮮總督 宇垣 一成
◇同六時 兒童劇 동무 全一幕 【配役】福吉(新聞配達)……辛琮華 玉姬(生徒)……成諸得 敬嬿(同)……吳千任 英順(同)……劉永順 今順옵바……鄭炳完 엿장사……都河景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 基 薰 伴奏 童劇伴奏團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一) 張 錫 英
◇同七時三〇分 講演 回想의一年 (二)金融界 朴 榮 喆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引鳳館 二、唱劇調 (가)春香歌中에서 (나)水宮歌 金 煉 守 鼓手 韓 成 俊
◇同八時三分 라듸오、스켓치 (가)田園風景 (나)無識한夫婦 (다)演說가튼演說 申 不 出 張 明 造
◇同 九時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金 錦 桃 李 月 色 大笒 金 永 根

醫學

결핵성술관절염

問 금년 二十세남자이온데 외편다리무릅이잇다금 쑤시는것갓고 시고 저리든것도 갓더니 지금은 전신이다 쑤시고 압흠을 늣깁니다 근일에와서는 숨이 갑부다고 하오니 무슨병이고 처방낭을 하교하여 주십시요 (安城 愛讀者)

答 술관절염인듯합니다。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그중에 가장 념려되는것은 결핵성이올시다。진찰을 하지아니하고는 물론 판단할수업스나 병은 항시 중한편으로 간주하야 치료하여야하니가 되도록 속히전문의에게 뵈십시오。지상으로는 도저히말슴드릴수업습니다。(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鎭南浦産業組合 不正事件이 綻露?

◇…苹果不正檢査問題로 檢査所側警察에 告發

産組檢查所間 紛糾未免?

【鎭南浦】 진남포평과(苹果)는 년산이 백오십만관이나되는바 외지로 수출되는 것은 반다시 평과검사소(苹果檢查所)에서 검사를 밧기전에는 외지로 보내지못하게되어잇는대 종종히 생산자로부터 자긔의조고마한 리익만생각하고 검사소의눈을 속히는일이잇서 진남포평과검사소에서는 일종 엄중한 검사를 하여오든중 지난십일월중에는 진남포평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야 장차서조선의 평과통제(苹果統制)를 부르짓고잇는 진남포산업조합(産業組合)에서 교묘한 수단으로 검사의눈을 속이려다가 발각되여 평과검사소에서는 진남포경찰서에 고발까지 하엿다는바 산업조합측에서는 조합상용인부 리모가 생산자와결탁하여 가지고 한일이니까 산업조합으로서는 책임질수가업다고 변명하나 검사소측에말을 드르면 산업조합이 법인(法人)이되여잇는관계상 그조합인부가 한일이라도 조합이 당연책임을 지게되는것인대 조합이 처벌을 당하게되면 조합장인 진남포 부윤(府尹)이 처벌을 당하게될터임으로 도산업과에서 이문제를중대시하고잇다고하며 산업조합에서 이러한행위가 한두번이 아니요 일년에도 사오차식이나 잇섯스며 더구나 일년 일차식 일본내지로 보내는 선전판매품(宣傳販賣品)에다가 그런짓을 하엿다는것은 진남포평과의 장래를 위하여 단연 용서할수업는 일이라고하여 일반의 비난이 놉흔일방 장차엇더한 결과를 내일는지 매우 주목되는바라고한다

진남포 산업조합에서 검사원의 눈을 속여 부정검사를 하려다가 발각되여 경찰의 고발까지 하엿다함은 별항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산업조합측에서는 일개인부가 한일을 침소봉대하여 신문긔자에게 까지이야기한것은 평과검사소의 검사원조선인 모씨가 고의로 한행동이라고 도당국에 보고를하엿슴으로 검사소측에서는 일종분개하여 리사를 상대로 무고죄로고소를 제긔하리라고하야 검사소와 산업조합사이에는 암암리에 큰분규를이르키고잇다는바 이로인하여 일층세민의 주목을 끌고 잇다고한다

全州藥令開市

十二月十二日부터

【全州】 지난 십이월 오일부터 개시(開市)케된 전주약령시는 그동안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부터야(十二月十二日) 시작되엿다 한다 약령개시점포 좌우에는 림시로 가등(街燈)을 장치하고 로점(露店)을 만드러 외래객의 편의를 도읍는중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봉상건강(鳳翔乾干)은 전주약령시에서 일수판매케 되앗슴으로 래객에게는 특별한 할인판매를 하리라고한다

泗川産組總會

廿日로決定

【泗川】 긔보한경남사천산업조합창립총회(泗川産業組合創立總會)를 지난칠일에 개최할려고 만반준비를 진행하고잇슴에도 불구하고 도에서추천한 조합리사(理事)를 채용하지안는다는 그리유로(?)도산업과로부터 괴한 총회중지명령이 나렷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이문제가 순조로 해결될세음인지? 혜 조합당국자의 말을 드르면 오는 이십일에 개최키로 총회일자를 결정하엿다고 하는데 리사채용문제가 문제엿든 만큼 어느날의 사태도 자못 주목되는 바이라한다

碧養面面吏員의 不正事實暴露?

前面長、面協議員을檢擧

一般은事態를重大視

【龍川】 한동안 면사무소 이전문제로 세인의이목을 집중시기든 룡천군벽양면에는 또다시중대사건이 발생되엿다 지난십일경에 룡천서에서는 돌연 활동을개시하야 전면장 박모(朴某)와 면서긔와 면협의원등 륙칠명을 검거인치한후 회계문부까지 전부압수한후 취조를 개시하엿는데 사건의내용은 절대로 말치안어 알수업스나 듯는바에의하면 면유림(面有林)매각사건과 공금에 대하야 모호한점이만타하며 일반은 이사건의추이를 중대시하고잇다한다

清道郡內細窮民 一萬三千六百餘

米價高로 二重苦難

【淸道】 수확기에 곡식을 헐가로 방매하고 벌서 량식이 격절되는 군내세궁민 일만삼천륙백여인은 점차로 등고하야가는 곡가에 막대한타격을 밧고잇는중인대 근일은 치위까지닥처와 그날그날의 연명이 크게문제되다는바그자세한수자는다음과갓다

細民	二、四四四戸	一〇、〇八一人
窮民	八三三戸	三、五六六人
失業勞働者		一三九人
不良住宅居住者		一三四人
浮浪及乞食者		二六六人

도 지경마다 신음성이 부절하며 심한집은 전가족이 모다와 서신음하는상태라한다

市場을橫行든 「쓰리」團員逮捕

【泗川】 군자 가을의 혜택으로 농촌사람들의 주머니속에 지폐장이나 너허가지고 시장에오는것을 긔회로쓰리단이 횡행하여 눈한번감적하는사이에 교묘히 돈지갑을 터러가는도난사건이 종종발생하는바인데 지난십일 사천군곤양시장「泗川郡昆陽市場」에서도 이런사건이 발생하야 마을시장을 경계하든 지주재소원의 손에쓰리단원한명을 체포하엿는데 그는 본적을 사천군 시천면 대내리「泗川郡矢川面大內里」에둔 박희한(朴熙漢)으로 삼인조쓰리단을 조직하야 각시장을 무대삼고 횡행하든중 이날 곤양시장에서 문무생(文武生)외 이명의 돈지갑을 훔치현금 이십여원을 절취한것이라하며 그의 일행인 이명은 아직미체포하엿는데 경찰은 방금 엄탐중이며 전기 박희한은 사천서에서 취조중이다

梅花里에 大火災

家屋一戸租四十石燒失

【蘇萊】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富川郡蘇萊面 梅花里) 신치화(申致和)의 집 변소에서 지난 십삼일 오후륙시경에 발화되여 맹렬한 불길은 바람을따라 집으로 옮겨부터서 일동십이간과 벼사십오석을 태워버렷는바 농촌이라 방화긔구가 업서서 십리를격한 소사 소방조원의응원을 어더 익일오전삼시에 진화되엿스나 때가 느젓슴뿐외라 물이 부족하야 할수업시 전소되엿스며 발화원인은 펴다문재에서 발화한것이라하며 손해는 일천사오백원으로 소래에서는처음보는 큰화재라한다

賭博團五名打盡

【長津】 장진군하갈서(下碣署)에서는 이즈음 오명의 도박단을 검거하엿다는데 그는모다일정한 주소와 직업이 업시도라다니는 자들노서 당지모음(某邑)집에 모여서 최소일원으로부터 오원 십원식판전을 걸고도박을하는것을 검거하엿다한다

高等里에火災

草家一棟燒失

【水原】 지난십삼일 오후칠시경에 수원군일형면 고등리(水原郡日荊面高等里)김영중(金永中)의집에서 불이나서 초가일동을 전소하고 수원소방대의 활동으로 진화시겻는데 발화원인은더운재를 재덤이에 버린것이 바람에 발화된것이라한다

家庭不和로 産兒即時壓殺

【水原】 수원군음덕면 남양리(水原郡陰德面南陽里) 홍사의(洪思義)의차녀 홍명희(一九)는 본월구일오후세시경에 자긔친정에서 옥동자를분만하야 그당장에 코를눌러죽인바 그사실이 수원서에 탐문한바되어 범인을 즉시체포하야 엄중취조중인데 홍명희는 소화구년시월에 고양군한지면 왕십리박성윤(高陽郡漢芝面往十里朴聖允)이라는 당년이십오세의 남자에게 출가한후 가정불화로 친정에와잇든 동안아이를나어서 그와가티 참살한것이라고한다

百餘名檢擧햇든 農組事件二次送局

全俊道外十二名을

【南陽】 일시 검거선풍으로 국경(國境)일대에 『센세이숀』을 일으키던 세칭 농민조합(農民組合)사건으로 국경을 중심하야 지난륙월이래 백여명을 검거하야 온성경찰서(穩城警察署)와 훈융경찰서(訓戎警察署)에 류치되엿던 거두 전근우(全權宇)와 전창욱(全長旭) 외녀자(女子)다섯명과 남자(男子)여덟명합하야 십오명은제일차로지난 시월에 일건서류와 함께청진(淸津)검사국에송치하고제이차로 온성경찰서(穩城警察署)에 류치하엿던 전준도(全俊道)외십이명을지난 칠일에 일건서류와 함께청진(淸津)검사국에 송국되엿다한다

扶餘申夏澈氏 歐洲遊覽登程

【扶餘】 충남 부여군 림천면 군사리(林川面郡司里) 신하철(申夏澈)(三一)씨는 지난 십일에 다년간 계획튼 구라파려행의 웅지를 품고 지방유지 다수의 송별리에 고향을 출발하엿는바 씨는 오는 십구일 장긔(長崎)출항의 구라파행긔선으로 대만을 거치여 구라파각국을 약사개월 예정으로 산업(産業) 교육(教育) 농촌(農村)종교(宗教)등 각방면에 긍한 시찰을하고 명년사월경에 회정하리라는바 일반인사들은 씨의 웅지에 만흔 긔대를 가지고 잇다 한다

中毒豫防巡講

【妙香山】 호상연례의 웅긔에 중독되야 다수한 생명을 빼앗긴사실은 루차보도되야 세상의 이목을 놀내게하얏는데 당국에서는 방지책에 로심하던중 금번 녕변경찰서주최로 각면가동에 순회케 된바 지난 십이일에는 당지묘향산여전 계림학교강당에서 이백여명 인사가 모힌중에 산중(山中)경부보외 정(鄭)공의로부터 통절한 강연이 잇섯다한다

酷寒襲來로 泗川에毒感猖獗

【泗川】 봄철처럼 따뜻하든 그후가 이삼일전부터는 갑작이 혹한(酷寒)으로 변하더니 이때문에 류행성독감(流感)이 대성행하여 경남사천(泗川)시내에 만

本報讀者優待 「洪吉童傳」上映

永登浦演藝館서

【永登浦】 조선영화로서 초유의 호화판이라고 할만한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십륙, 칠량일간영등포연예관에서 상영하기로되엿는데 특히 본보애독자에게는 특별히 계상오십전을 삼십전으로 계하삼십전을 이십전으로 각각 할인우대키로 되엿는대 홍길동전은 조선에잇서서는 물론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편으로 이것을 영화화하기까지에는 만흔경비가 들엇스며 려사가 윤백남(尹白南)씨의 고심력작으로 오백여명 의노력한남녀배우들의익숙한 기술과 영화예술의 정수(精粹)로서 되엿이만치 누구나한번가볼만한 가치가 잇다 고한다

社告

今般 本社에서 左記와如히 支局을 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永安支局 位置 咸鏡線永安驛前 支局長 趙時學

出浦支局 位置 全北出浦市 支局長 洪淳弘

今般 本社에서 左記와如히 支局을 變更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撫順支局 位置 撫順東四條通六ノ一 支局長 李英一

鐵原支局 位置 鐵原郡邑內 趙宗奎 右任支局長 / 支局長 金○煥 右依願解任

今般 本社에서 左記와如히 販賣所를 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成歡販賣所 位置 京釜線成歡驛前 主任 李熺鍾

德山販賣所 位置 慶全南部線德山驛前 主任 具相珞

謹告

鐵原支局 顧問 金應煥 右新任

安東支局 一直分局長 朴鳳奎 右新任

淸州支局 記者 申岡 文義分局長 姜昌佑 右解任

南陽支局 顧問 任德元 右新任

靈岩支局 記者 辛夕潤 右依願解任

延吉支局 顧問 朱基龍 右新任

提川支局 總務兼記者 吳弼泳 右新任

主婦之友

新年特別號는十八日發賣

三大特別附錄의偉觀! 新年號가 近日에 發賣됩니다。늦으시든지 懷舊를 노치지마시고 只今곳、近處書店에 申込하여 두시오。賣切되려가업고、發賣되면 곳品切되오니 써 가장便利하다。特價八十錢。書店이업고不便하신분은、東京神田·主婦之友社(振替東京一八〇番)에 振替로注文하여주시옵소서。送料는 附錄共 十二錢입니다。

總二色刷の 和服お裁縫全集 豪華大附錄

冬服夏服兒童服으로부터大人服까지 百五十種裁斷法을全部圖解式總二色印刷로發表하엿다 이와가티알기쉬운和服裁縫大全은처음이라고評判

圖解本位の お客料理全集 別冊大附錄

雜費도그러케안들고 家庭에서손쉬이調理할수잇는손님待接料理를季節을나누어서 多數히發表하엿습니다。또는和食洋食支那料理의一品料理도 多數히發表되여잇쓰으로써家庭의惣菜에도 利用되야一般家庭에는重寶!

實物見本이近處書店에노혀잇습니다 반드시한번參考로뒤적여보시오

기침에 コデチン (고데친)

달큼한…… 시로푸劑 먹기쉽고 効果迅速

鎭咳作用: 고데친은、主成分인記酸、고데인誘導體、부롬劑等의相加作用에 依하야氣管支의强度的痙攣을緩解鎭靜하야서 기침의發作을鎭靜한同時綜合的鎭咳鎭靜作用을나타내고기침에苦痛밧는患者를速히安靜케하는偉効를가젓다。따라서밤에는安眠케하야 治癒恢復을더욱더욱조케합니다

解熱作用: 前記와가튼綜合作用으로다시氣管支의炎症發熱을除去하고、純良解熱劑의併有로長期에亘한潜伏熱을解消식혀준다。流感期를當하야他劑의追隨할수업는가친藥이오니一家에一個式常備하여주심을願합니다。

全國有名藥店에잇슴。買求하실時는特히고데친이라指名하시옵。

藥價 五十錢・三十錢・一圓・二圓・三圓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 大阪市東區

適應症 感氣로된痰기침・氣管支가타루・肋膜으로된기침・小兒기침

新日本의傑作品 型은싱가ー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國産 蛇目미싱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躍進日本!의覇者

이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進步發展의結晶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을生産하게되엿습니다。

國産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일호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됨으로 只今은全世界를壓倒하야『싸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定評을밧고 멀리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한피치를올니고 잇습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産額二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여잇슴니다。

全鮮進出을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 하고잇사오니希望하시는分은申込하시면年賣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忠北	崔寶煥商店
鳳山	吳得龍商店
延白	延安裁縫機械商會
甲山	鮮興商店
海州	禹聲商店
靑陽	尹斗煥商店
南原	朴琪永商店
洪城	朴鍾乙商店
甕津	甕津裁縫機械商會
昌城	甲子基業組合ミシン部
慶州	尹鍾澤商店
信川	金錫謙商店
平原	李一枝商店
鐵山	李萬鎰商店
扶餘	李俊珪商店
安岳	金乘律商店
鎭南浦	歐米裁縫機械商會
龍川	高尙鉉商店
江華	高必書商店
新義州	金明熙商店
平壤	各國ミシン商會
金泉	朴聖鎭商店
尙州	朴容勳商店
晉州	二申商店
水原	河相奎商店
裡里	裡里ミシン商會
黃州	玄應八商店
松禾	李基元商店
井邑	井邑ミシン商會
昌寧	崔奉世商店
安城	崔峯商店
加平	鄭泰復商店
谷山	郭南龍商店
江西	平和商會ミシン部
宜寧	宜寧ミシン商會
大田	禹一麟商店
醴泉	黃在宇商店
群山	鄭石九商店
論山	東亞ミシン商會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園町 各地支社 大阪、名古屋、靜岡、橫濱、神戶、京都、靑森、甲府其他

健康은 蛔虫驅除부터

마구닌錠

小兒用 菓子藥 마구닌제리 (專賣特許)

蛔虫은不知不識간에人體에侵入하야孵化합니다 그리고人體에必需營養分을吸取함으로 營養不足、貧血、腹痛等의諸症을發케하야發育과健康을阻害하는大敵이니 每月一個式服用합시오

마구닌錠一三〇錢・七五錢・一圓三五錢

마구닌제리一二〇錢、五十錢、一圓、二圓

十錢마구닌錠 (大人一日量)

可恐할蛔虫이란冊子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京城西小門町

KM-61

今年經濟界回顧와 明年大勢打診 ②

爲替

日本의 今年貿易은 依然히 良好한 成績을 내어 그 總額에 있어서 또는 그 貿易決算에 있어서 世界大戰以來의 記錄을 지으려는 好調를 示하고 잇는 바 이 貿易好轉의 有力한 原因은 日本對外爲替市勢의 低位安定에 잇다고 할 것이다 또 貿易外收支計算에 잇서서의 大宗인 海運界의 盛況도 또한 이 爲替低에 起因한 것이다 如斯히 觀察하면 現在日本財界의 穩健한 好調維持이 低爲替安定에 基하는 바 如何히 큰가를 알 수 잇다

×

爲替의 動向은 正金의 建値가 英貨에 링크되어 以來 爲替의 對英市勢로 如實히 表示되고 잇는 바 正金의 對英建値는 昨年十一月十八日에 一志二片十六分에 一에서 一志二片으로 引下되어 以來 實로 一年과 二個月의 長期間에 亘하야 不動하고 잇다 市中市勢도 이 正金建値를 中心으로 多少의 上下는 잇섯스나 平均하야 一志二片의 安勢가 繼續되어 왓다 이에는 正金의 爲替政策이 適宜하얏슴은 勿論이려니와 안에 잇서서는 日本國內 經濟界의 穩健着實한 好調가 이를 支持하고 또 爲替管理法의 힘이 잇고 밧게 잇서서는 英米가 모다 安定狀態에 잇서서 昨年再昨年과 如한 재는 激變이 업고 또 法貨도에 변 金離脫을 傳하면서도 寧態依然한 것 等이 爲替의 安定에 寄與하는 바 잇섯기 때문으로 이 傾向은 明年에 드러서도 繼續되리라고 생각된다

×

明年度豫算의 編成도 그 總額二十二億을 超過하는 膨大한 것으로 그 約五割가 公債에 依存하게 되는 바 이가 軍事費에 關하기는 하나 赤字公債의 發行額은 自然增收豫定額만치 收縮되어 何如間 赤字公債漸減方針이 確立되엇슴은 財政上의 不安을 一掃치는 못하나마 輕減함에 힘이 잇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今年의 貿易狀態는 世界大戰中과 如한 例外의 때를 除하면 正히 未曾有라 하야도 조호리만한 好調를 示하고 잇고 貿易外收支도 海運英貨의 如한 特別支出이 잇스나 海運界와 如함은 他國의 不況에도 不拘하고 殷盛한 現狀임에서 推察하야 相當한 受期計算이 豫想되므로 此點도 予先 好條件을 提供하고 잇다고 할 것이다 貿易의 前途에 關하야서는 各國이 日本의 旺盛한 輸出力에 對하야 여러 가지로 防遏手段을 講究하고 잇슴으로 여러 가지의 悲觀說도 잇섯스나 結局 싸고조흔 物品은 팔리는 것이 原則으로 今年의 好調가 現實로 悲觀說을 必要가 업섯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이리하야 最近漸騰傾向에 잇는 日本內地物價가 急激한 乃至 大幅의 昂騰을 示치 안는 限 또는 政界財界에 突發的變化가 이러나지 안는 限 明年度의 爲替에도 何等 變化가 잇스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

爲替自體에 對하야서는 如斯히 大勢的으로는 큰 問題가 업스리라고 생각되나 對外的으로는 (一)法의 動向 (二)協定案 即 英米크로스의 動向이라는 二問題가 잇다 第一의 法의 動向에 對하야서는 只今까지 예변이나 金離脫의 危機를 부르지지면서도 그때마다 危機를 脫하야 왓다 이 金本位固執이 示弱는 것과 가티 法의 將來性은 하면서도 보이면서도 强靭하다 한듯이 될 수 박게 업다 그 原因은 一、佛蘭西는 預金者生國으로 그 點 先年의 平價切下로 그 打擊을 痛感하고 잇다

二、如斯히 預金者生國이니만치 金離隊者의 實力은 非常히 强大한바가 잇서서 이로 脫離에 依한 低爲替希望의 產業家도 支配되고 잇는 것이 現狀이다

三、佛蘭西의 金離脫은 英米가 願하지 안는 바 임으로 爲替平衡資金을 出動하야 이를 援助하고 잇서서 將來라 할지라도 리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리하야 小波動은 잇슬지언정 大勢的으로는 法의 動向에는 그리 큰 變動이 업스리라고 할 수 잇스나 最近 七百億法을 割하게 된 金準備가 益益 減하면 欲不欲에 不拘하고 法危機가 到來할 念慮가 充分히 잇슴으로 그만치 商의 强調 따라 日英市勢低가 豫想된다

×

第二의 物價의 動向에 對하야서는 아직 約一割切下의 餘地가 大統領에게 잇기는 하나 只今으로서는 그 出動은 업스리라고 생각된다 商의 動向에 잇서서는 金보다의 動搖로 流入하야오는 때라든가 또는 時의 爲替平衡資金의 出動以外에는 이러타 할 動搖가 업서서 가장 安定한 都市의 通貨라고 할 것이다 이리하야 最近은 從來식 乃至는 國際通貨會議等이 自然的으로 서지리만치 크로스 安定時代를 出現하얏다 即 大體四弗九十仙內外에 安定이 되엇다고 보아서 조흘것이다 今年 크로스의 最低는 英國의 政局不安 米國의 金約款無效判決等으로 四弗七十四仙八分의 一이 最低로서 크로스는 如何도 옹직이는 日米爲替도 當時 二十七弗十六分의 十三으로 今年의 最低를 示하얏다 그러나 그後 金ブロック의 動搖에 依한 英國에의 金流入과 米國의 銀買政策에 依하야 크로스는 漸騰하야 八月에는 今年의 最高四弗九十八仙四分의 一까지 오르고 따라 日米爲替도 二十九弗半의 今年最高價를 示하얏다 最近은 크로스 四弗九十三四仙 米二十八弗十六分의 十一 近邊에 安定되어 잇는 바 如斯히 크로스가 그 變動의 幅을 縮少한 것으로도 알 것이려니와 磅과 弗도 大體 實勢的 安定點을 어든 듯 보인다 이 傾向은 突發的事變이 업는 限 爲先明年도 繼續되리라고 생각된다

×

如斯히 爲替自體에 對한 變化가 업고 他方 法及英米 크로스의 變動에도 그다지 大幅的 動搖가 잇다고 볼 수 업슴으로 于先 明年爲替界도 今年程度의 小幅的動搖로 推移를 보지 안을가 한다 다만 今年度는 綿花와 羊毛의 需用가 大體 相當히 延長될 것으로 此等應需約四億圓가량이 來年三、四月頃까지에 現到하게 될 것으로 그것만은 今年보다는 좀 急激한 波紋을 이르킬는지 모른다 또 中國으로부터의 銀의 密輸入額은 將來는 적어질 것으로 이 點으로 보아도 對英市勢는 좀 低下되야 할 地位도 堅固하여질는지 모르니 가격軟化한다 하야도 昨年의 最低一志一片四分三程度로 될 것 갓기도 하다.

上海銀市場에서 日本銀買入顯著
中國銀國有令發布以後現象
米國은 倫敦向銀監視

【華盛頓十四日發電通】華盛頓當局은 最近 上海銀市場에서 日本側이 非常한 活躍을 하고 잇다는 것을 熟知하고 잇다 이것을 熟合에 對하야 이미 이것을 熟知한 듯이 財務省의 聲明書에는 日本側의 銀買人은 最近顯著한 活況을 示하야 注目된다라고 記하얏다 그리고 民間의 銀消息通은 中國銀의 世界各地로 密輸出이 增大한 것은 財務省이 倫敦으로부터의 銀買入方針을 變革한 때문이다 라고 잇고 잇다 그리고 官邊에서는 目下 深甚한 注意로 日本으로부터 倫敦에 到着할 銀塊의 非常한 增加를 監視中이라고 觀測되는 바 特히 十一、十二의 兩月에 到着된 것은 五千百萬圓에 達하야 一九三四年 全米國에 通한 到着量 千四百萬圓보다 增加率이 急激함을 알 수 잇는 것으로 그 急增은 中國政府가 銀國有令을 發布한 以來 이러난 現象인 것은 注目되는 터이라고 한다

京城銀價 慘落出現
買物全無狀態

市中銀價는 倫敦銀價慘落에 伴하야 十六日은 賣一匁二十一錢 買一匁十九錢으로 賣는 一擧三錢五厘、買는 三錢의 慘落이 잇는데 買物全無의 狀態이엇다

產繭增產要望
製絲協會陳情

朝鮮製絲協會에서는 二兩日前定期總會를 열고 來年度豫算今年度決算案을 附議決定한 바 一會員의 提案에 依하야 原料不足對策을 協議한 結果 舊正休業中에 再次臨時總會를 열고 桑園의 改良 蠶飼育改良等에 依하야 產繭三百萬石의 增產政策實行을 總督府에 陳情키로 되엇다고 한다

今日財界 (十六日)

◆米 (單位錢)

	今日止	前日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 一斤	上	[illegible]
價 下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一圓五十五錢	[illegible]
銀 一匁賣	二十一錢	十九錢

◆株 (單位圓)

	今日止	前日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昨年中林產總額 一億六百三十萬圓
比前年千萬圓增加

農林局發表에 依하면 昭和九年의 林產總額은 一億六百三十萬圓으로 그中主要한 種別產額은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千圓)

▲用材一七、八五〇 ▲竹材三二〇 ▲薪二四、五一〇 ▲枝葉(燃料)二六、六八〇 ▲其他林產燃料一五、八九〇 ▲綠肥二五四〇 ▲堆肥原料七、八〇〇 ▲飼料三、七九〇 ▲木炭二、八六〇 ▲種實一、八二〇 ▲其他一、九七〇 ▲計一〇六、三〇〇

이것을 前年林產總額九千四百萬圓에 比하면 約一千二百萬圓增加로 林產의 太宗은 燃料로 되고 比例는 燃料六三%、用材一七%、肥料一〇%이엇다고

▲郵便振貯 京城貯金管理所에서 十一月中에 取扱한 振替貯金受入金額은 四千四百二十萬一千五百六十四圓 拂出金額은 四千二百七十萬九千八百三十二圓인데 이를 前年十一月中의 支拂高에 比較하면 受入에는 二割七分 拂出에는 二割四分이 모다 增加되엇다 그리고 十一月中의 新規加入者는 二百四人이고 脫退者는 八十八人인데 十一月末現在의 加入者總數는 二萬四千二百九十五人이며 預金額은 六百二十三萬二千三百三十七圓으로 이를 前年十一月末의 現在數에 比較하면 加入者數에 잇서 七分强、預金額에 잇서 二割五分强이 모다 增加되엇다

京城手形交換 最高의 記錄
八億九千五百萬圓

京城手形交換所의 今年一月一日로부터 十二月十五日까지의 手形交換高는 百三十九萬八千七百二十四枚、交換金額 八億九千五百三十二萬三千圓으로 前年同期累計에 比하야 枚數十萬一千百二十一枚 一億二千百八十六萬七千圓의 各增加인데 昨年中의 手形交換高八億四千六百萬圓보다 五千萬圓이 만아 即過去의 最高記錄을 十二月十五日 現在로 깨트린셈이라고 한다

朝滿兩銀 業務協定
二十五日頃實施

【東京電話聯合】朝鮮銀行總裁는 十四日 岡田首相을 訪問하고 歸任의 人事를 하엿는데 同氏는 十六日 東京發京城에 向하야 約一個月의 豫定으로 朝鮮滿洲各地를 視察할 터인데 新京에서는 二十二、三日頃 全滿支店長會議를 열고 이번에 成立한 朝鮮滿洲銀行業務協定의 主旨를 徹底케 하는 同時에 協定實施의 準備를 할 터이다 그리고 이번의 協定을 實行하드래도 實際 朝銀行券이 滿銀券으로 變하는 것은 적을 것이나 半年間을 要할 모양인데 全額은 五六萬圓程度일 것이라고 하다 協定實施는 빨라야 今月二十五日頃보다 될 것이라고 한다

米移出不振
配船積荷七割程度로

朝鮮米의 積載는 各港이 모두 市勢가 低廉한 關係上 移出商談이 成立치 못하고 十一月末以來 各船會社가 모두 配船船腹의 七割程度로 그 成績이 不良하다 이 結果 十二月의 移出은 各港이 모두 前年에 比하야 二、三割의 減少는 免치 못할 모양이라고 한다

米穀爲替資金
增勢가 一段落

米穀爲替資金中 荷爲替資金은 十一月로부터 十二月上旬까지 各銀行이 모두 制限한 바 最近增加의 勢가 줄어서 한마루를 너머슨 모양이 잇고 米穀擔保의 貸出은 今後來年一月末까지 늘게 될 것으로 觀測하는 바 이에 依하야 보면 僻地米의 海港地移動、또는 日本內地移出도 이로써 一段落을 告한 狀態이라는 觀測이 잇다

上旬製造煙草賣渡

【專】賣局十二月上旬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 一百二十三萬三千五百八十九圓으로 各支局別은 京城四十六萬五千一百三十七圓、全州二十七萬七千一百十六圓、大邱二十三萬一千六百十圓、平壤二十五萬九千七百二十六圓으로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一割五分二厘의 增加이라고.

鉄鐵市勢漸騰
銑鋼輸入稅引下提唱

【東京電話電通】最近 製鋼各社는 鋼材界不振인데 鋼材市價가 不拘하고 그 原料인 銑鐵價格이 一向低下치 안흠뿐만 아니라 明年一、三月渡延價는 永年의 統制가 畢竟破하여 日鐵과 銑鐵共販의 兩建價가 생겨 共販建價는 一圓을 올리기로 되얏다 이것을 直接의 動機로 昨今 銑鐵市勢를 低下케 할으로 銑鐵當六圓에 達하는 高率의 輸入關稅引下를 하라는 主張이 製鋼業者間에 再次擡頭하야 注目을 끈다

商況 (十六日)

株式 依然難伸 頭重

前場伸惱 今前場은 綿絲暴落等에 不拘코 鐘新暖高로 東新、日產도 强步이엇스나 高價買警戒로 伸惱이엇스니 即再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十錢高인 百七十二圓五十引、日產十錢低인 七十二圓二十錢、大新十錢低인 百圓九十錢、鐘新九十錢高인 百五十九圓七十錢、朝新十錢低인 三十一圓四十錢에 各大引

後場鈍重 後場은 東新百七十三圓十錢 日產七十二圓五十錢 朝新三十一圓四十錢에 小高寄後 依然伸惱裡鈍重大引

取組壓迫에다가 商品低의 重壓
綿絲大關門割

北中、伊에 兩問題는 前道難測의 情勢이오 米國의 市況도 反動化를 示하고 今前場은 米棉六十五錢低로 綿絲二百圓關門割의 暴落其他棉花、人絹、生絲一齊低의 不勢를 報하야 取組重壓에 加勢하얏슴으로 休日을 지난 今前場도 高價伸惱의 整理的採合而已이오 局面打開難의 浮動이엇다

結局整理低?
但大押目難望

東京長期二百十萬株 短期百五十萬株合計三百二十五萬株의 取組는 決코 적은 것이 아니오 아모리 大勢高라 할지라도 相當히 買飽한 것이 事實로 이 壓迫은 前途如何에 不拘코 整理가 必要하나 取組重壓은 實際的 힘을 示키에는 取組量만으로는 決定할 수 업고 前途를 생각할 根本的大問題가 잇스니 買氣의 一巡과 價位關係에 依한 警戒의 反映人氣에 止하겟고 整理의 引受者인 後陣이 튼튼하니 決코 大押目은 업슬 것이다 年末이 迫到한 今日整理難免이라면 高價期待는 喪失되엇다고 볼 수 잇서 一應取組重壓에 依한 保合下放의 假態를 示할 것이나 이것을 쪼차서 賣함은 前述과 如히 不利하고 押目買로 臨할 것이라는 것이 常識的判斷인 모양이다

買入氣普遍化
新春高는 買場?

歲末高、春高人氣旺盛이나 市勢는 鈍重하야 買疲勢의 形跡이 잇는데 東京 短期仕手關係를 보면 東新買三十店、買七十二店의 大下良이오 軟派의 賣目標인 日產까지도 賣二十六店、買六十四店인족 如何히 買人氣普遍化인 것을 알 수 잇다。六月賦入後 約六個月 올느기만 햇스니 一應下押이 定石이오 勿論 市勢가 根本的으로 破綻된 것은 아니래도 新春高는 絶好의 買場이겟다는 말도 잇섯다。

短期配當落

鐘新二十二圓 京城電氣、淺野세멘트新、大阪商船新、西鮮合同電氣、朝鮮無煙炭各二十七圓에 配當落實買

實物株前場取引

取引高一六〇枚 ▲大同電力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日本電工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鮮鐵四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朝鮮材料가 乏하고 强弱雙方의 氣乘薄으로 保合이다

甲五分利 一〇四、七五
佛貨四分利 一八六、七五

期米 小高後에 伸惱

前場少高 再昨後場 阪地三十圓七十二錢止와 共히 二十八圓七十四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一休會期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七十九錢인 七十錢高를 報하고 二十八圓七十六錢인 二丁高로 場을 始한 後 阪地八十四錢으로 返戾止場함을 作하야 八十二錢으로 强硬히 場을 止하엿다

後場不變 後場은 二十八圓八十錢에 二丁低로 結場後 八十一、二錢間細刻으로 八十三錢에 止場하다

市勢稍히 强味
委員會압두고

明十七日은 米穀委員會에서 昭和十年度米의 新公定價格을 決定하게 되는 날인데 此公定價는 一時 一圓乃至一圓五十錢程度의 引上說도 잇섯거니와 大體物價指數로 보는지 又는 三年繼續의 凶作으로 보아서 引上할 것만은 無疑의 事實이나 그러나 引上의 程度가 마치 何如할지 問題視되는 바이다 目睫에 公定米價의 決定을 보기에는 各地市場은 稍然緊張味를 添하야 東京은 十六丁의 突高를 示하고 大阪은 十丁餘 當地亦十丁餘의 高價를 示하야 近日保勢로서의 제법 活氣를 呈하는 듯하다 그러나 果然 公定價를 引上한다고 一段高價를 示할지도 疑問이다 其理由는 旣히 市勢에 行動을 加한 바 잇슬 뿐 아니라 問題의 政府米買上을 實施하지 안코는 更히 昂騰을 新할 餘地가 업슴으로 人氣만은 多少强할지 몰으나 米價의 그 自體만은 當分高價를 許하지 안을 것 갓다

米의 延食傾向
買出動는 尙早?

今年度의 朝鮮米作은 昨年보다 百餘萬石의 增收豫想임으로 足히 悲觀할 것이 업다 日本內地米作豫想은 五千七百五萬石으로 越年後에 發表될 又一層減少될 것으로 豫測하는 今日에 잇서서 前途高米價를 否定할 수는 업스나 그러나 出穀期에 入한 此際에 日本內地의 米界事情을 綜合하여 보면 一般消費層에서 日本米의 古米와 滿洲米 又는 朝鮮米를 混合하야 食用에 供하게 됨으로 自他의 新米는 自然延食을 하게 될 것 갓다

市場六感

株 二十日前後一落이고 大納會지음에 爆發을 期待하는 모양이나 ▲市勢를 이러케 보고 잇는 때문에 今朝는 綿絲關門割等 商品一齊低에도 不拘코 떠러지지 안햇다 ▲그러나 取組重壓과 相俟하야 結局은 一落難免? ▲大勢方針이란 것은 整理를 妨害 ▲鐘新은 그래도 拂込決定을 기다리고 百五十九圓

米 今朝東京의 十六丁의 突高로 버티고 잇는데 또 더 바랄 수 업는 것이 아닐까 ▲何如間 强弱의 意見이 極端으로 相反되재 二十日을 바라보고도 保合不動인 市勢年內가 決코 簡單치 안코 意外의 大波瀾이 잇슬 豫感이 난다 ▲結局이 나올이나 어쨋든 大暴市勢를 한번 보라고 虎視眈眈한 人사람들 누가 등묵주머니를 채우게 되랴노? 웃고 울어도 十日밧게 남지 안햇소

高를 비롯하야 阪仁共히 十丁餘의 反高를 示하엿다 그러나 保合範圍는 脫出하지 못한결 ▲明日米穀委員會에 決定될 公定米價의 引上을 豫期하고 各地共히 人氣가 硬化한 모양이나 公定價를 引上한다고 市勢가 昂騰하지는 못할 듯 ▲公定價格의 一圓程度引上은 旣知한 事實로서 旣히 市勢에도 行動을 一巡하엿다고도 할 수 업슴으로 買上을 實施하기 外에는 別影響이 업슬 모양 ▲實로 政府는 今年內에 施行하지 안코 越年末에나 實施하려 한다고 某消息通은 傳한다 ▲日本內地의 新米出廻는 越年後 一月頃부터나 旺盛하리라고 一般은 觀測하고 잇다 ▲此觀測이 當을 得할지는 몰으나 出盛期의 買上은 이혀 保勢를 總增할 前提 ▲何如間 政府의 根本方針은 高米價를 보고서 買上을 實施하지 안을 모양이니 암만해도 凶作이라 할지라도 急騰反撥은 難期

各地正米

京城不變 定期小强이나 依然

群山强含 小口의 補充買가 散見될 뿐으로 閑散하나 低價期待薄과 定期小强으로 市勢는 大槪强含인 菱ク三等廿七圓卅五錢 四等廿七圓卅五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同調 產地는 日本內地로부터의 買付中絶이나 正租高로 引緩치 안코 市況은 閑散裡에 保合인 丸木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大邱不動 歲末關係로 糯米에 氣移態度임으로 賣行不振이나 產地가 引緩치 안흠으로 市勢下落인 角フ三等廿八圓丁 四等廿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六錢

釜山引緩 經品側定期側의 買氣潛在이나마 一般으로 低價待의 消極的態度를 示하고 年末換金의 賣氣가 豫想되어 氣配十錢引緩인 角フ三等二十八圓丁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仁川保合 期米小高를 移하야 앗스나 依然人氣는 形勢觀望의 保合이오 產地도 四圍의 形勢를 보고 잇서 丸仁三等二十八圓卅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廿圓五十錢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乘換山種 田中貞 中東側地場區分
▲買方=朝鮮側乘換 馬越乘換地場目前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各市場大納會

朝鮮證券部는 二十七日 前場限 大納會이온 旣報한 바와 갓거니와 各地主要市場의 年末年始立會는 如左하다 (△印前場限)

市場	大納會	受渡日	大發會
大株長期	△廿三	廿六	△廿七
同 短期	｜	｜	△廿七
同 實物	｜	｜	△廿七
東株長期	△廿三	廿六	△廿七
同 短期	｜	｜	△廿七
同 實物	｜	｜	△廿七
新東長期	△廿四	廿四	△廿八
同 實物	｜	｜	△廿八
博多株	△廿三	廿六	△廿七
廣島株	△廿三	廿六	△廿七
長崎株	△廿三	廿六	△廿七
名古屋株	△廿一	廿四	△廿七
大阪期米	△二十	廿三	△廿六
神戶期米	△廿一	廿三	△廿六
下關期米	△十九	二十一	△廿六
佐賀期米	△十九	廿一	△廿六
熊本期米	△十九	廿一	△廿四
仁川	△二十	廿一	△廿六
木浦	△十八	二十	△廿八
大邱	△二十	廿一	△廿八
群山	△廿一	廿四	△廿七
釜山	△十九	廿一	△廿七
大阪綿絲	△二十	廿四	△二八
東京綿糸	△二十	廿四	△廿八
大阪棉花	△二十	廿四	△廿八
大阪人絹	△廿一	廿四	△廿八
東京人絹	△廿一	廿四	△廿八
福井人絹	△廿三	廿四	△廿八
神戶生絲	△廿一	廿四	△廿八
橫濱生絲	△廿一	廿四	△廿七
大阪砂糖	△廿一	廿四	△廿七
東京砂糖	△廿一	廿四	△廿七
神戶穀肥	｜	｜	廿八
豐橋乾繭	十四	二十	廿八

【備考】新春初立會는 例年대로 四日 前場限이오 但 橫、神兩生絲만 六日이다。

金融 (十六日)

◆海外經濟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米穀 (十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金貫入價◆ [illegible]
◆對外民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六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지카코期米◆ [illegible]
◆滿洲油◆ [illegible]
◆鮮滿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十六日)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新取短期實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十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入價 取組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當限 [illegible] 引後高配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正米高◆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現物D格八六〇圓 [illegible]
◆海外砂糖◆ 十四日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二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玉蜀黍購入
五圓貳拾五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金銀高價買入
金銀賣買合資會社
代表者 大盛守德
電話本局一三八○番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黃金町)

金.銀.白金
德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代金引換發送 料金先要 送料

金銀賣買
號金獎
地方注文郵送料要先金
京城府貫鐵洞一二四
電話長光一五九九

株式
福
小林取引店
京城府明治町

期米
福
取引店